Entertainment p/18

올 최고의 음원 씨스타19

metro

메트로 2013년 12월 11일 수요일 www.metroseoul.co.kr

Sports p/21

애리조나도 추신수 러브콜

나랏빚 웃도는 공공기관 부채

NEWS p/02

원격의료 전문병원 못 만든다

NEWS p/03

휘팍 명물 '미디어플라워' 아세요 p/09

2013년 산학협력교과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

LG전자, 한화S&C 등 기업과 함께하는 기업형 맞춤 교육생 모집

열정과 잠재력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ICT/SW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고 현장 중심 맞춤형 인재를 발굴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주최
"2013년 산학협력교과과정 운영"

nip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IPA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 ORACLE

⊙ 교육 목표

- 기업 요구기술에 부합한 인재양성을 위해 기업이 직접 제시한 요구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응용력을 갖춘 "기업형 맞춤인재" 양성
- 겨울방학 기간 중 참여 기업이 필요로하는 맞춤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교육하여 이론교육, 기술 습득, 인턴쉽까지 연결,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 특징

- □ 기업형 맞춤 과정 무료 교육
- □ 우수 수강생 혜택 : 참여 기업(LG전자, 한화S&C, 이스트소프트, 지란지교소프트 등) 인턴쉽 인센티브 제공 및 채용 시 가산점 부여
- □ 지방거주 학생 기숙사 제공
- □ 참여 기업 현장 방문 : 회사 및 사업 소개, 인사채용 정책 설명, 시설 · 장비 견학 등
- □ 정기상담, SNS 정보공유를 통한 실시간 멘토링

⊙ 모집 개요

- □ 모집기간 : ~ 2013.12.18(수) 오전 11:00
- □ 모집인원 : 180명 (4개 과정 5개 반)
- □ 모집대상 : 대학 재학생 2, 3, 4 학년
- □ 선발기준 : 교육생 지원서를 통한 서류심사

⊙ 접수처

- □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www.koipa.or.kr) 사업공고
  ▶ ICT 지원서 다운로드 ▶ 과정별 이메일 접수
- □ 접수기간 : ~ '13.12.18(수) 오전 11:00
- □ 이메일 접수처

과 정 명	접 수 처
1. DB/NETWORK과정	NDB@koipa.or.kr
2. SW 엔지니어 전문가 과정	ESW@koipa.or.kr
3. Application SW 융합과정	ASW@koipa.or.kr
4. System SW 융합과정	SWW@koipa.or.kr

⊙ 일 정

교육생 모집	▶	서류심사 결과발표	▶	교육시작	▶	교육종료
~ '13.12.18		13.12.23		13.12.26		14.2.21

※ 결과발표는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www.koipa.or.kr) 홈페이지 공지

⊙ 교육 개요

- □ 교육기간 : 2013.12.26~2014.02.21 - 2개월, 240시간
- □ 교육장 및 기숙사 : 경기대학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 □ 교육시간 : 월-금 09:00~18:00 (8시간)
- □ 교육내용

"SW집중 과정" 개설 현황

구 분	1. DB/NETWORK과정	2. SW 엔지니어 전문가 과정
교육목표	DB 및 Network 보안 전문가 양성	스마트 기기의 SW개발자 및 보안SW전문가 양성
교육과목	DB기본/모델링, SQL튜닝 DB네트워크, Servlet & JSP 등	C언어, Java, 알고리즘 등
교육생규모	50명	50명(분반운영)
대상학년	대학 3학년	대학 4학년
교육기간	*이론 7주, 실습 1주	*이론 6주, 실습 2주
인센티브 부여 기업	한화S&C	이스트소프트, 지란지교소프트 및

"SW융합 전문가 과정" 개설 현황

구 분	1. Application SW 융합과정	2. System SW 융합과정
교육목표	SW 개발을 위한 기본 언어와 모바일 기반의 응용 App개발을 위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기술 습득	SW 개발을 위한 기본 언어와 Linux 기반의 Embedded 프로그래밍 기술을 습득, H/W의 특성 이해 및 제어 기반 습득
교육과목	Java/Android Programming, SW 공학, UI/UX기획, C, Linux/Unix 등	Java,Android 포팅/활용, Framework 분석, C, C++, SW Analysis/Design, linux/Unix 등
교육생규모	50명	30명
대상학년	대학 2, 3, 4학년	대학 2, 3, 4학년
교육기간	*이론 7주, 실습 1주	*이론 6주, 실습 2주
인센티브 부여 기업	LG전자	LG전자

⊙ 문의처

- 사업관련 :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경영기획실
  인적자원개발센터 모해월 대리
  (T)02-556-2092 (E)hea2101@koipa.or.kr

- 접수관련 :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경영기획실
  인적자원개발센터 정유리 연구원
  (T)02-556-2024 (E)yrj@koipa.or.kr

평균 18세 걸그룹 거센 돌풍

metro

메트로 2013년 12월 11일 수요일 www.metroseoul.co.kr

황금장갑에 연봉 대박까지!

굿바이! 마디바… 전 세계가 그를 떠나보냈다 10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FNB 경기장에서 열린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만델라 전 대통령의 청년·중년·노년시절의 모습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비춰지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남아공 인권과 전세계 평화의 상징인 만델라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95세 일기로 타계했다. 이날 영결식에는 전세계 100여 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4면> /AP 연합뉴스

피같은 내 돈 투자할 땐 칼같이!

금융당국 관리감독 강화하고 불완전 판매 걸리면 파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서둘러야

집중진단 '수술대 오른 금융'

[글 싣는 순서]
1. 불완전판매 금융사고 실태
2. 국민은행 리딩뱅크 추락하나
3. 만연한 금융사고 예방과 대책

동양증권 사태 이후 '불완전판매'가 금융권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일단 팔고 보자는 식의 영업관행이 '동양 사태'라는 참극을 만든 셈이다. 앞으로 '제2의 동양 사태'를 막기 위해선 금융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금융인의 윤리적 책임 의식, 투자자들 본인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업계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금융권의 불완전판매 이행과 대책에 대해 들어봤다.

우선 투자자들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지금 금융 환경에선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고 조언했다. 조 대표는 "어려운 투자 상품이면 어렵게 팔리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쉽게 팔리는 판점이다 보니 늘 불완전판매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생 어렵게 모은 돈인데, 마치 10만~20만원 건강식품을 구입하듯이 이런 선택을 하는 환경이라면 환경 자체도 잘못됐고,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때도 문제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도 "개인투자자들은 금융사 직원들 말만 무조건 믿고 투자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국장은 "동양 사태는 금융인으로서의 양심 문제"라고 일침을 놓은 뒤 "투자 상품에 대한 판단 능력 없이 무턱대고 가입하면 항상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품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그 회사의 재무제표나 기업 정보, 상품 가치가 어떤지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 이성만 팀장은 "현재 금리를 보면 동양그룹이 제시한 금리가 일반 시중은행 금리보다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소비자들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 역시 불완전판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감독 당국도 이미 동양 사태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통제하지 못한 점이 큰 문제를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조 대표도 "동양 사태는 1차적으로 금융 당국의 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서 금융 당국이 소비자 피해 구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금 당국이 하고 있는 분쟁 조정은 4만9000명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보상 대책으로 보기엔 상당히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동양그룹이나 동양증권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판매했을 때 사기 행위는 없었는지 검사해야 하는데, 이런 건 다 빼고 상품 판매할 때 누가 얼마나 잘못했냐는 식의 조사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강 국장은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소개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도입했는데, 금융사가 불완전판매를 하면 거의 파산이라는 비극적 최후를 맞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년 전부터 이 제도의 도입 제안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는 또 "한국 금융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선 소비자에 보다 훨씬 질좋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해서 불완전판매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지·정혜원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16일부터 매일 두 번씩 미세먼지 무조건 예보

16일부터는 미세먼지 예보가 매일 예보 체제로 전환된다. 또 내년 2월부터는 예보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식약처, 기상청은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5단계 등급 중 '약간 나쁨' 이상일 때만 예보문을 발표했으나 16일부터는 등급과 무관하게 매일 예보키로 했다.

미세먼지 예보는 대기 질을 좋음(0~30㎍/㎥·일), 보통(31~80㎍/㎥·일), 약간 나쁨(81~120㎍/㎥·일), 나쁨(121~200㎍/㎥·일), 매우 나쁨(201㎍/㎥ 이상·일) 등 5등급으로 구분한다.

또 하루 한 번 하던 예보 횟수도 내년 2월부터는 두 차례로 늘리고 예보 지역도 호남권, 경상권, 제주권까지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26일부터는 대기질 실시간 정보 제공 사이트 인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에 문자메시지 서비스 기능을 추가해 휴대전화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 경보제'도 2015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윤다혜 기자 ydh@

JP모건과 동양증권

기자 수첩
김민지 <경제산업부 기자>

올 한 해 금융 산업은 사면초가의 형국에 처했다. 잇따라 터진 부실 비리·횡령 의혹 사건부터 은행권 수익성 악화, 금융소비자들의 불신까지 존재되면서 위기감만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동양증권 사태는 올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금융 당국이 최근 발표한 '동양사태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 보완책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 증권사들이 일반 소액 투자자들에게까지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직접 팔면서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불완전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를 어겼을 경우 영업정지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도록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를 엄중하게 묻고 넘어간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는 금융위기 이전에 모기지담보증권(MBS)을 미구잡이로 판매한 것과 관련해 총 130억 달러(약 13조7500억원)의 벌금과 구제금을 내기로 했다.

지금 동양 사태 피해자들은 말뿐인 종합 대책보다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일가와 담판을 짓는 금융 당국자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이다. 분명 회사채와 기업어음 투자에는 투자자의 책임이 따른다. 그러나 불완전판매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보여주기식 대책 보다는 선량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때다.

공공기관 부채 566조원

나랏빚보다 120조 많아…LH는 MB정부 5년간 무려 71조나 늘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국내 공공기관의 전체 부채가 565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446조원보다 120조원 많은 수치다. 특히 LH·한국전력 등 12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 MB정부 5년간 187조원에서 412조원으로 급증했다.

안전행정부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공기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MB정부 5년간 부채가 급속히 증가한 것은 4대강 사업 등을 떠맡으면서 크게 증가했고, 높은 인건비 등 방만 경영도 부채 증가에 한몫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과다 부채를 가진 공공기관으로 지목한 곳은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국전력,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LH공사, 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12곳이다.

이들 기관은 2007년 MB정부 출범 때만 해도 부채 규모가 186조9000억원이었지만, 이듬해부터 매년 30조~50조원의 부채가 증가해 2012년에는 412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5년간 부채 증가가 가장 많은 곳은 LH로 71조2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 부채 문제 해결을 늦출 수 없다고 보고 부채 방만 경영 해소가 부진한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 경영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기관이 자체적으로 개혁을 위한 계획을 만들고, 정부는 이행 실태를 평가해 결과에 따라 보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탈세·비자금 의혹' 조석래 효성 회장 검찰 출석

● 효성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조석래(78) 효성 회장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전 조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그룹 내 자금 관리 실태와 탈세, 횡령 및 배임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각 계열사에 대한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는 그룹 총수로서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지시·묵인했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지난해 산모 5명 중 1명은 35세 넘는 '고령산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분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산모수는 47만2747명이며 그중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가 전체의 21.6%를 차지했다.

이 기간 35세 이상 고령 산모 구성비는 21.6%였다. 분만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세~34세로 전체의 59.9%를 차지했다. 지난해 산모 전체의 평균 연령은 31.6세였으며 초산 평균 연령은 31.1세였다. 제왕절개수술 비율은 36.9%였다. /황재희기자

JP 5년여 만에 국회 나들이 10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운정회' 창립 총회에 참석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본인과 관련된 기록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 행궁동 경관대상 우수상

수원시가 9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3년 대한민국 경관대상' 시가지 경관 분야에서 '행궁동 생태교통 마을만들기'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행궁동 마을은 도시경관의 좋은 사례로 평가됐다.

서울시 창업스쿨 온라인 과정

서울시와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교육의 온라인 과정을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창업스쿨(school.seoul.kr)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02)6003-3510

양승조만 찾는 기자들… 썰렁한 김한길 양승조 '석패' 등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던 중 회의실에 입장하는 김한길(오른쪽) 민주당 대표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 양승조·장하나 제명안 제출…민주 "공포정치 부활"

새누리당은 10일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포정치의 부활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4시45분께 초선 의원인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로 새누리당 의원 155명 전원 명의의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제명안을 제출한 김도읍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양 의원은 엄중한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암살을 선동하는 발언을 했고, 장 의원이 보궐선거를 실시하자고 한 것은 헌정 질서를 중단하라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두 의원 모두 헌정 질서 중단 사태를 초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서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준수의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제명안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과잉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더 위험한 행태"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청래 의원은 "대선 불복의 원조 정당은 새누리당"이라면서 "두 의원의 제명안 처리를 운운하는 것은 공포정치의 부활이다. 이러니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세머리당'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내에선 새누리당의 의원직 제명 추진과 국정원 개혁특위 연기가 지나친 행동이라고 보고 더 세게 맞서야 한다는 '강경 대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조현정기자 jhj@

한국사 교과서 모두 최종승인…'편향논란' 일단락

7종의 한국사 교과서가 10일 모두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교육부가 구성한 수정심의회는 8개 출판사가 제출한 829건에 대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심의했으며 지난달 29일 이 중 788건을 승인하고 41건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날 나머지 41건에 대한 수정안도 모두 최종 승인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 현장의 교과서 선정·주문에 차질이 없도록 이날부터 전시본 웹 전시를 시작하고 오는 18일께부터 서책형 전시본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 선정·주문을 오는 30일까지 완료하게 되며 내년 2월에 학교 현장에 교과서 공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수정명령을 받은 7종의 집필진 중 교학사를 제외한 6종 교과서 집필진이 수정명령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여서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명령의 정당성 논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아직 남아있다.

/이다예기자 ydy@

미국인 5명 중 1명은 '뉴 리치'

중년 전문직·고학력 독신 생애 최고연봉 25만 달러

미국인 5명 중 1명이 신흥 부유층인 '뉴 리치'에 속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AP통신과 시카고대학 여론조사센터(NORC)가 공동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뉴 리치는 미국 인구의 21%를 차지한다. 이들의 생애 최고 연봉은 미 상위 2% 수준인 25만 달러(약 2억6000만원)다. 중년 전문직과 고학력 독신자가 대부분이며 뉴욕·샌프란시스코 등 미 동서부 곳곳에서 살고 있다.

이들의 재·우관념은 전통적인 부유층과는 다르다. 소득이 항상 상위 2%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뉴 리치는 긴 부들처럼 씀씀이가 크지 않다. 정부의 재정 지출에도 부정적이다. 우상급식 등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사업은 지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뉴 리치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몸집이 커졌다. 상위 20% 뉴 리치의 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51%로 사상 최대였다.

일각에서는 뉴 리치가 미국 경제 회복을 견인했다고 주장했다. 잭 누비스 액센츄어 연구소 국장은 "뉴 리치는 세전 소득의 60%를 쓴다"며 "이들이 얼마나 더 소비할 수 있는지가 경제 회복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선미기자

평안히 잠드소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FNB 경기장에서 거행된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애도 연설을 하고 있다(왼쪽). 전 세계에서 만델라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말리꿈 ... 대 남아공 대사관에 설치된 대형 만델라 초상화 앞에서 대사관 직원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AP 연합뉴스

빛속 세계인은 하나였다

전세계 정상 100여 명 참석 – 만델라 '세기의 영결식'

10일(현지 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FNB 축구경기장에서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공식 영결식이 열렸다.

추모식은 '세기의 거인'을 보내는 자리답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전 세계 91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세기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오바마 대통령과 부인 미셸 여사는 이날 오전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내외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로 남아공에 도착했다.

영국에서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와 토니 블레어 전 총리, 고든 브라운 전 총리가 참석했으며 프랑스에서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도 만델라 전 대통령과의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이날 행사는 굵은 빗줄기 속에 한시간 가량 늦게 시작됐다. 박수갈채 속에 연단에 오른 오바마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만델라를 '20세기의 마지막 해방자'라고 칭송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남아공은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만델라는 몸소 실천을 통해 한 국가를 정의의 길로 이끈 '역사의 거인'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 전 미국과 냉전관계에 있는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과 악수를 나눠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반 총장도 이날 현사에서 "친구이자 스승을 잃었다"며 "우리가 슬픔의 빛속에서 우지개를 볼 수 있길 바란다"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전 세계가 배웅한 이날 영결식은 흥겨운 나팔소리가 울려퍼지는 등 축제 분위기였다. 비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10만여 명의 인파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다.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군 병력 등 1만5000명이 배치됐지만 큰 사고는 없었다.

/조선미기자 ssmm@metroseoul.co.kr

영혼없는 소비 9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오그란데 도 노르테주의 한 쇼핑몰에서 상파울로 대학교 학생들이 소비지상주의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학생들은 온 몸에 진흙을 바르고 눈을 가린 채 쇼핑백을 들고 소비지상주의 세태를 꼬집었다. /로이터 연합뉴스

결연 10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잉락 친나왓 총리가 조기총선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 동쪽 남극 영하 94.7도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은 어디일까? 미국설빙센터는 9일(현지시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위성으로 측정한 자료를 인용, 최신 최저기온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섭씨 영하 94.7도를 기록한 동쪽 남극대륙이 가장 추운 곳으로 나타났다.

미국설빙센터의 테드 스캠보스 연구원은 "동쪽 남극대륙이 2010년 8월 영하 94.7도를 기록했고, 올해 7월31일에도 이와 비슷한 영하 92.9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라고 확신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기록은 기온계로 측정한 것이 아니고 위성으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기네스북에 오르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스캠보스는 "이 정도 기온이 어떤 느낌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다"며 "과학자들이 남극에서 영하 73도 정도일 때 옷을 입지 않고 밖으로 나가 기온을 체감하곤 하는데 3분 이상을 버티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조선미기자

"총선전 사퇴 안한다" 울먹거린 잉락 총리

태국 반정부 시위를 이끌고 있는 수텝 터악수반 전 부총리가 조기 총선을 거부하고 잉락 친나왓 총리의 퇴진을 요구했다.

1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수텝 전 부총리는 선거는 선거제도와 경찰 등의 개혁을 완수한 뒤에만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퇴 시한으로 24시간을 주겠다"며 말했다.

앞서 잉락 총리는 9일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만 총리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텝 전 부총리는 "지금부터 직접 국가를 통치하고 국민 회의와 국민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일축했다.

이날 잉락 총리는 헌법에 따라 과도 총리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거자 밝혔다. 의회해산과 함께 선포한 내년 2월 조기총선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하게 한 것이다. 잉락 총리와 반정부 시위대가 이번 위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 태국 정국은 또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조선미기자

market index <10일>

코스피	1993.45	(-6.93)
코스닥	497.72	(-4.50)
금리	2.91	(+0.01)
환율	1052.20	(-0.80)

뉴스 & 뉴스

"내년 물가상승률 2%대"

● 기획재정부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 초중반대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10일 '최근 물가 동향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주요 선진국 물가 상승률은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라며 한국의 물가도 선진국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추이가 경기 상승기에는 선진국과 격차가 0.2%포인트로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내년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5%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채원기자

"기업 회계투명성 미흡"

● 회계 업무 관련자들은 국내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 수준을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2주간 회계 업무를 수행·관리하는 상장사 경영진과 공인회계사, 회계학계 교수 등 50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회계 투명성 수준에 대해 7점 만점에 평균 4.04점을 줬다.

회계 투명성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향상됐는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4.80점)하는 편이었다. /김현정기자

외국인 5개월만에 순매도

●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업 실적 우려와 원화 강세 등을 이유로 한국 증시에서 다시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 달간 일본 닛케이 평균 주가(닛케이 225)는 9.31%,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3.68% 상승한 반면 코스피는 0.73%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3000억원어치 팔아치우며 5개월 만에 순매도로 돌아선 영향을 받았다. 전날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메릴린치는 내년 한국 증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했다. /김현정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총 괄 회 장	남 궁 호
사장 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인 호
서울광고본부	02)721-9851~3
부산광고본부	051)552-2900
독 자 센 터	02)721-9795

2005년 1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56

기업 30% "서른 넘으면 신입 채용 꺼려"

연령 세대를 없애는 '열린 채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나이 든 신입사원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778개 기업(대기업 25곳·중견기업 71곳·중소기업 68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9.4%가 30세 이상 신입사원 지원자 채용을 꺼린다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채용을 꺼리는 이유로는 '위계질서가 흔들릴 것 같아서'(60.3%)가 가장 많이 거론됐다. '연봉에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서'(41.5%), '입사 동기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35.8%), '취업이 늦은 결격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26.2%) 등이 뒤따랐다.

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60.4%(470곳)는 입사 적정 연령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생각하는 신입사원(4년제 대학졸업 기준) 적정 연령은 남자 평균 28세, 여자 평균 26세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기업의 16.2%(126곳)는 적정 연령을 넘겼다는 이유로 지원자를 무조건 탈락시킨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국현기자 kmlee@

내년 주택거래는 늘겠지만…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문가 "집값 상승 글쎄"… 중개업소 문의전화 증가

공유유기 이후 침체 양상을 띠던 주택 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를 위한 1%대 초저금리의 '공유형 모기지'가 9일부터 접수에 들어가고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불확실성 탓에 관망만 하던 수요자들이 거래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물경기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중개업소 "전화 문의 내용이 달라졌다"

우리은행을 통해 9일부터 공유형 모기지 판매에 들어간 결과 첫날에만 550건이 접수됐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시범사업에 비해 예고 기간이 짧고, 현장 접수만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지만 정부가 예상했던 50~100건을 크게 웃돌았다.

같은 날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일산·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와 목동 일대의 중개업소에 전화가 이어졌다. 특히 이전까지 "법안 통과가 됐느냐"는 질문이 주를 이뤘지만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된다는데 집을 사도 되느냐"는 문의가 많아졌다.

분당 B부동산 관계자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고 아파트가 투자처로서 매력도 떨어진 만큼 법안이 통과됐다고 전폭 가 뒷받지는 정도는 아니다"면서도 "문의 내용이 이전에는 확신 없이 이것저것 물어보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기회에 집을 사는 게 맞느냐는 식의 상담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올해보다는 좋아지겠지만

주택 시장에 대해 전문가 강한 회복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데다 불확실성까지 제거되면서 내년 주택 시장은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분위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셋값이 워낙 비싸고 집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지자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며 "올해보다 거래 부문에서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말 그대로 '회복'이지 '상승'까지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올해 취득세 면제, 양도세 한시적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 내년에는 거래 절벽이 나타날 수 있어 실수요자를 어떻게 거래 시장으로 끌어들일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들이 시장으로 유입돼도 집값이 오르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입지와 가격에 따라 양극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산하기자 pearl0320@metroseoul.co.kr

외인 팔자에 코스피 하루만에 2000선 내줘 10일 코스피는 기관이 매수한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세에 밀려 전 거래일보다 6.93포인트(0.35%) 내린 1993.4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6개월 만에 500선이 무너지면서 497.72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꺾일줄 모르는 원화강세

1040원대까지 밀릴수도

달러당 원화 환율이 거침없는 하향 세를 타면서 1040원대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오는 17~18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양적완화 축소가 논의될 가능성에도 불구, 원화 강세 기조는 꺾일 줄 모른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간밤 역외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2원 가까이 하락한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에서 1.5원 낮은 1051.5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는 전날 장중 1052.0원까지 떨어지면서 연저점을 바짝 돌파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연저점을 갈아치웠다.

시장에서는 연일 이어지는 원화 강세에 1050원대가 붕괴될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 1050원대는 심리적 지지선이자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높아지는 한계선으로 여겨진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달러당 원화 환율이 1040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경기 회복으로 신흥국의 수출 경기 불안이 완화되면서 신흥국 통화의 강세를 이끌 전망"이라며 "안정적 외채 관리, 외환 보유액 증가, 경상수지 흑자 등 한국의 외환 안정성도 원화 강세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외환 당국은 곧바로 구두 개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개장 전 "최근 달러·원 환율 하락과 관련해 역외 NDF 시장에서 투기적인 움직임이 없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최근 환율 쏠림 현상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달러·원 환율은 0.80원 하락한 1052.20원에 장을 마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차명거래 전면차단 사전등록제 도입을"

금융실명제법상 차명거래를 전면 차단하고,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로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임원 등이 법인과 연결된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관행이나 거래 편의를 위한 차명거래는 '차명거래 사전등록제' 방식을 도입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차명거래는 거래 명의자와 돈의 실제 주인이 다른 금융거래를 말한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비실명거래의 허용과 가명을 금지하고 있으나 명의자와 실권리자가 다른 '합의에 따른 차명거래'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동창회 회비 통장, 남편의 경아저축 관리 등 관행이나 거래 편의를 위한 차명계좌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금융기관이 아닌 차명계좌와 비자금 조성, 탈세, 자금 세탁 등 범죄 목적의 차명거래를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현정기자 pitdah@

알뜰폰 시장 주목하라

내년 ICT산업 10대 이슈 선정

KT경제경영연구소는 10일 2014년 정보통신기술(ICT) 10대 주목 이슈 특집 보고서를 통해 ▲통신 ▲미디어·포털 ▲IT서비스·제조 ▲IT 연계 비즈니스 등 4개 분야 총 10가지의 주요 이슈를 선정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알뜰폰(MVNO) 시장의 활성화 가능성 ▲창조경제 정책 지원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했다.

미디어·포털 분야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OTT(Over The Top) 서비스 이용의 확산 ▲모바일 메신저의 글로벌 플랫폼 경쟁 ▲모바일 광고 시장의 다변화된 광고 기법 등이 주요 이슈로 거론됐다.

IT서비스·제조 분야에서는 ▲웨어러블 컴퓨터의 안착 가능성 ▲모바일 비즈니스 환경(Enterprise Mobility) 시장 확대 ▲모바일 정보보안 및 정보 보호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IT 연계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한 빅데이터 시장의 본격화 여부 ▲모바일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연계되고 있는 모바일 커머스의 향후 발전 가능성을 주요 이슈로 내다봤다. /이재영기자

리얼리티 더한 '위닝일레븐'

신형엔진 달고 그래픽 강화

내년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위닝일레븐 온라인 2014'가 모습을 드러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10일 경기도 판교 사옥에서 위닝일레븐 온라인 2014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27일 첫선을 보인 이 게임은 콘솔 버전과 달리 선수들의 뻣뻣한 움직임 등으로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위닝일레븐 2014는 새로운 엔진 탑재와 그래픽 강화로 전략 축구게임 국내 1위인 넥슨의 '피파 온라인3'에 도전한다는 입장이다.

위닝일레븐 온라인 2014는 신규 엔진 '하복'을 통해 선수가 움직일 때의 가속도 및 충돌 시 작용·반작용도 실제 경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됐다. 아울러 '폭스' 그래픽 엔진으로 바람에 휘날리는 유니폼, 휘날림과 선수 눈동자에 비친 경기장 모습까지 세밀하게 드러냈다.

NHN엔터테인먼트 우상준 총괄이사는 "위닝일레븐 온라인 2014는 사실성 재미 쾌적함을 고루 겸비했다"면서 "내년에는 콘솔 버전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위닝일레븐 온라인 2014의 공개 시범 테스트(OBT)는 내년 초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 버전은 26일 오전 4시부로 서비스가 종료된다. /장윤희기자 unique@

한국 "비트코인은 화폐 아니다"
코빗 "혁명 흐름에 뒤처질수도"

Issue&View

가상화폐 비트코인 논란

/이재영기자 ljm.ee@metroseoul.co.kr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필명을 쓰는 개발자에 의해 지난 고안돼 2009년 1월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가상 화폐로 기존 화폐를 주고 거래소에서 사들이거나 난해한 수학 문제를 푸는 '채굴' 방식으로 얻을 수 있다. 발행량이 2100만 비트코인으로 제한돼 있으며 현재 약 1200만 비트코인이 시중에 나와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라인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열기가 뜨거워지자 정부가 서둘러 화폐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며 김빼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글로벌 화폐 혁명의 흐름을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내 최대의 비트코인 장터인 한국 비트코인거래소(코빗)는 한국 정부가 전 세계적인 비트코인 혁신 흐름에 홀로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진화 코빗 이사는 "비트코인이 성장해온 것은 그 혁신성과 가능성에 주목해온 민간에 의해서였지 정부의 인정이나 육성 정책에 힘입은 것이 아니다"며 "이 새로운 혁신의 도구와 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글로벌 혁신의 흐름에서 한국만 고립되거나 도태되는 일이 없도록 민관이 함께 생산적인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경고는 지난 5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비트코인이 화폐·금융 상품으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비트코인을 악용한 금융실명제 위반·자금세탁 가능성은 감시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인기의 배후로 꼽히던 중국도 규제에 나서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비트코인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경고했고, 최대 인터넷 포털인 바이두와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도 비트코인 사용 허가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최근 밝혔다.

이런 규제 움직임은 비트코인이 마약·총기류 해킹 프로그램 등 불법 상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데다 해킹 사고도 빈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도 요동치고 있다.

1년 만에 10배 이상 폭등해 이달 초 1200달러(약 127만원)를 돌파했던 비트코인의 가치는 최근 다시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내 비트코인 테마주도 줄줄이 하락세를 탔다. 이날 비트코인 채굴에 필요한 PC 장비 관련 업체인 제이씨현은 하한가 폭탄을 맞으며 2375원에 장을 마감했고, 보안 솔루션 업체인 한일네트웍스도 5.59% 하락하며 2040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돈으로 받는 전 세계 상점 가맹점이 1300개를 돌파한 데다 국내에선 비트코인만 결제가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까지 등장하면서 인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2008년에 이어 올해 전 세계를 덮친 금융위기로 인한 달러화 등 기존 화폐에 대한 불신도 아직 강해 비트코인이 물거품처럼 사라질지 화폐 혁명을 가져올지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필름사진을 디지털 파일로 LG유플러스는 필름사진·비디오테이프를 디지털 파일로 무료 변환해 개인형 미디어 클라우드 서비스 U+박스에서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국민 앨범' 이벤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국민 앨범 이벤트는 1인당 비디오테이프 2개, 필름사진 50장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 후 선착순 1만 명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LG유플러스 제공

농협카드 쓰면 리조트가 반값…놀이공원 할인도

NH농협카드는 '2014년 겨울 시즌'을 맞아 고객들의 신나는 겨울나기를 위한 다양한 할인 및 캐시백 제공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주리조트와 대명리조트, 보광리조트 등 전국 14개 주요 스키장에서 행사 기간 동안 농협카드를 이용하면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달 말까지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1만2000원에 살 수 있는 놀이공원 할인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또 12월 한 달 동안 금~일요일에 코오롱스포츠 및 K2, 아이더 블랙야크에서 농협카드로 결제시 최대 5만원까지, 빈폴아웃도어(일부 매장 제외)에서는 최대 2만원까지 캐시백으로 제공된다.

더불어 이벤트 홈페이지에서 응모한 고객이 12월 음식점 등 요식업종에서 농협카드로 누적 30만원 이상 이용시 추첨을 통해 최대 10만원을 캐시백 해준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협카드 홈페이지(card.nonghyup.com) 및 이벤트 홈페이지(nhcardevent.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선옥기자

BC카드 임직원 100명 심폐소생술 자격증 전원 합격

BC카드 임직원 100명이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심폐소생술 민간 자격증에 도전해 10일 전원 합격했다.

지난 10월 동료와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게 인간의 기본 권리라는 이강태 사장의 제안에 따라 전사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련 교육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BC카드는 이번에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취득한 100명을 '하트 에인젤스(Heart Angels) 100'이라는 인명구조단으로 임명했으며, 앞으로 이들은 경남역과 같은 공공장소·노인복지회관 등에서 심폐소생술 시범 봉사를 포함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mint0820@

한글과컴퓨터 '이지포토3' 日 수출

토종 소프트웨어가 해외시장을 개척했다. 하드웨어와 달리 국산 소프트웨어는 내수용으로만 쓰이는 경우가 많다.

한글과컴퓨터는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디지털 이미지 편집 전문 소프트웨어 '이지포토3'를 일본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일본 소스넥스트 코퍼레이션과 10일 계약했다.

한컴은 이번 계약으로 자사의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가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한국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계기를 가졌다.

기존의 외산 디지털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는 가격과 기능면에서 접근 장벽이 높은 반면, 한컴의 이지포토3는 누구나 이미지를 손쉽고 간편하게 편집해 출력할 수 있다.

한컴은 이지포토3의 일본어 버전 제품을 일본 파트너 기업인 소스넥스트의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11일부터 일본 시장에 판매한다.

향후에는 현지화된 패키지 제품을 출시해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추가 공급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성훈기자 zen@

SK플래닛이 평창 보광휘닉스파크에 설치한 정보통신기술(ICT) 조형물 '미디어플라워'는 날씨·교통 상황·셀카 사진 등 다양한 정보 및 콘텐츠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SK플래닛은 스키시즌을 맞아 2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웰로, 플래닛 서비스 체험부스'를 마련, 참여고객을 대상으로 OK캐쉬백 1000포인트, 11번가 5000원 할인권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14.8m 디지털 조형물>

휘팍에 가면 '명물' 미디어플라워 있다

LED로 애니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방문객 "재미있고 설레" 호평

겨울 스키 시즌을 맞이 방문한 평창 휘닉스파크는 고객맞이로 분주했다.

지난 6일 방문한 평창 휘닉스파크는 평일에도 불구하고 스키나 보드를 타기 위해 찾은 이용객들이 수백 명에 달했다.

특히 평창 휘닉스파크는 2018년 평창올림픽 정식 종목이 펼쳐지는 경기장으로, 겨울 스포츠의 열기와 현장감을 관광객들이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가능성의 꽃을 피우다' 콘셉트

이런 가운데 휘닉스파크의 입구에 들어서면 거대한 디지털 조형물이 한눈에 들어온다. 바로 플랫폼 서비스 전문기업 SK플래닛이 지난 10월 23일 설치한 '미디어플라워'다. 미디어플라워는 무궁화가 피어나기 직전인 꽃봉오리 형상의 높이 14.8m, 둘레 9.5m, 5개의 LED 디스플레이를 설치한 조형물이다. 이 미디어플라워는 '가능성의 꽃을 피우다'라는 콘셉트로 제작된 것으로, 일반인들이 꿈꾸는 재미난 상상의 실현은 물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바라는 염원을 담았다.

이 미디어플라워를 지나는 휘닉스파크 방문객도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반적인 조형물이 아닌 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각종 애니메이션, 다양한 정보, 이용자들의 사진 등 이 자체만으로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저녁이 되면 주위가 어두운 가운데 미디어플라워의 LED 조명이 환하게 주위를 비춰준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영상이 보는 이들에게 설렘을 안겨준다.

미디어플라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던 김영민(25)씨는 "영상을 보면서 벌써 설렌다. 스키도 타고 다양한 재미와 정보도 얻고 일석이조인 것 같다"면서 "미디어플라워가 휘닉스파크의 랜드마크를 넘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 같다"고 전했다.

◆'T맵' 통해 교통·날씨 안내

스키장 입구 근처에 설치된 미디어플라워는 SK플래닛의 서비스인 'T맵'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체크해 서울시청·인천시청·강남역 등 주요 지역까지 소요 시간을 계산해 안내해준다. 또한 날씨 정보 앱인 '웨더퐁'을 통해서는 실시간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카메라 앱인 '싸이메라'를 통해 포토키오스크로 촬영한 사진과 메시지를 선보인다.

포토 키오스크는 지난달 21일 휘닉스파크 입구 쪽에 개관한 '미디어플라워 라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셀프카메라를 촬영해 미디어플라워나 e메일, 문자 등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ICT체험관 '라운지' 눈길

특히 미디어플라워 라운지 내의 브랜드 홍 예서는 SK플래닛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브랜드의 캐릭터를 제작해 시각적인 잔상 효과를 적용,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영상으로 구현한 '조트로프' 기법으로 3D 애니메이션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김석주 아트디렉터의 지휘하에 만들어진 이번 작품은 마치 종이에 그림을 그려 넘기면 움직이는 것 같은 '플립북'을 연상하게 한다.

미디어플라워 라운지를 방문한 김용주(41·여)씨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 어제도 방문하고 오늘 또다시 방문했다"면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참신한 것 같다. 특히 브랜드 홍의 3D 애니메이션 작품은 정말 신기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제 본격적인 스키 시즌이다. 휘닉스파크에서 스키도 타고 SK플래닛의 '미디어플라워 라운지'를 방문해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도 체험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정보통신기술 무료로 배우실 분

IT비즈니스진흥협회 18일까지 교육생 180명 모집 – 기업 채용 가산점 부여도

iPA Korea IT Business Promotion Association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술(ICT) 산학협력 클러스터 운영사업의 '산학위탁교과과정' 운영 사업자로 선정돼 18일까지 기업 맞춤 ICT 소프트웨어(SW) 교육생을 모집한다.

산학협력교과과정 사업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 분야의 교과과정을 방학 중에 개설해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우수 학생에게 가점 및 특별채용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교육형 산학협력 프로그램이다.

2013년 참여 기업은 LG전자, 한화S&C, 이스트소프트, 지란지교소프트 등이다.

교육과정은 ▲데이터베이스(DB)·네트워크 과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전문가 과정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융합과정 ▲시스템 소프트웨어 융합과정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지방 거주 학생에게는 기숙사가 제공된다. 모집 인원은 180명으로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공부하는 2, 3, 4학년 재학생이 대상이다. 18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 후 23일 서류심사 결과 발표를 거쳐 26일부터 교육이 시작된다. 교육 기간은 2014년 2월 21일까지다.

참여 교육생은 전공 학점과 토익 등 스펙과 상관없이 기업이 제시한 기술 과목의 학습 기회를 제공받고, 참여 기업은 우수 학생 선발 및 인턴십 기회를 부여해 맞춤 인재를 발굴하게 된다.

우수 수강생의 경우 올해 참여 기업인 LG전자, 한화S&C, 이스트소프트, 지란지교소프트 등에서 인턴십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지난해 참여 기업인 LG전자 인사담당 채용팀은 참여했던 교육생 중 20여 명을 특별 채용으로 선정한 바 있고, 올해도 같은 규모로 생각하고 있다며 교육에 참여하는 대학생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는 그간 수행했던 교육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의 정확한 요구 사항 반영과 교육 참여자 만족도 평가, 직관적인 교육생 학람 평가 툴 도입 등 교육생과 기업에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공해 만족감을 높일 것이라 말했다.

세부 교육 등의 문의는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인적자원개발센터(02-556-2024, 92)로 문의하면 된다.

/장대균기자

갤럭시 노트3 판매량 1000만대 돌파

출시 2개월만에 기록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3번째 작품인 '갤럭시 노트3'가 1000만 대 판매를 돌파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3가 지난 9월 25일 출시된 이후 2개월 만인 11월 말 현재 세계시장에서 누적 판매 1000만 대(공급 기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2011년 출시된 '갤럭시 노트'가 1000만대 달성까지 9개월, '갤럭시 노트2'가 4개월 걸렸지만 '갤럭시 노트3'는 2개월로 텐밀리언셀러 달성 시기를 대폭 앞당겼다.

신종균 사장은 "갤럭시 노트3의 글로벌 1000만 대 판매 성과는 전 세계 고객의 성원 덕분"이라며 "사랑을 위한 혁신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택균기자 kspel@

홈플러스 와인 판매대 모습 /홈플러스 제공

와인·소주 소비 늘고 맥주·양주는 줄었다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대형마트에서 와인과 소주의 매출이 늘어난 반면 맥주·양주·전통주 등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 기간 이마트는 주류 전체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업체의 주류별 판매 증가율은 와인이 7.7%로 가장 높고, 소주가 7%로 뒤를 이었다. 맥주 매출은 3.7% 증가에 머물렀지만 민속주와 양주는 오히려 각각 9.7%와 5.9%씩 감소했다.

이로 인해 주류 상품군별 매출 기준 비중은 와인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6%에서 20.6%로 2%포인트 높아졌고, 소주는 15.9%에서 16.5%로 0.6%포인트 올라갔다. 맥주는 46.6%에서 47.0%로 0.4%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양주는 9.8%에서 8.5%로 1.3%포인트, 전통주는 9.1%에서 7.4%로 1.7%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이 기간 롯데마트의 주류 매출도 이마트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와인 비중은 17.1%에서 18.1%로 1.0%포인트 높아졌고 소주의 비중은 16.0%에서 16.7%로 0.7%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맥주 비중은 46.1%에서 45.6%로 0.5%포인트 떨어진 것을 비롯해 양주(-0.2%포인트)와 전통주(-0.9%포인트)도 약세를 보였다.

홈플러스에서는 소주 매출이 작년 동기에 비해 7.0%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가장 컸고 와인 매출도 4.2% 늘었다. 반면에 위스키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4.7% 하락했다.

이영순 이마트 주류담당은 "와인의 대중화 영향으로 대형마트가 품질이 좋으면서도 저렴한 와인들을 선보이면서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며 "소주 소비량이 늘어난 것은 장기 불황 탓에 저가격대의 술을 찾았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정영일기자

물건보다 믿음 먼저 팔아라

식품업계 스마슈머 잡기 위해 진심 전달 마케팅 강화 – 정유업계도 마찬가지

요즘 유통업계는 이색적으로 바뀌었다. 재료가 무엇인지, 원산지는 어딘지, 어떤 효능이 있는지 등 제품 정보를 상세하게 얘기하면서 신뢰를 쌓는다.

이런 움직임은 똑똑한 소비자 일명 '스마슈머(스마트 컨슈머)'를 잡기 위한 방책이다. 스마슈머는 과일 하나, 음료수 한 잔에도 원산지를 확인하고 몸에 좋지 않은 첨가물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한다. 요즘 소비자들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과감하게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블로그 등에 자신의 의견을 표출한다. 이 같은 스마슈머들의 등장에 화려한 포장보다는 기업들의 '진심'을 전달하는 일명 믿음 브랜딩이 늘어나고 있다.

풀무원의 경우 신완전표시제, 생산이력 정보시스템, 바른먹거리 캠페인 등은 제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기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기업과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성공적인 브랜딩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도 믿음 브랜딩이 실시되고 있다. 세노비스의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 '건강, 세노비스를 믿으세요(Simply Trust)'(사진 왼쪽)가 특히 눈길을 끈다.

세노비스 측은 이 캠페인을 품질 정면에 내세웠다. 소비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신경 써서 깐깐하게 만든 브랜드의 원칙과 고집을 강조했다. 중금속 농축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소형 어류에서 추출한 오메가-3, 지구 반 바퀴를 돌아 안데스 산맥에서 재취된 유기농 로즈힙 열매로 탄생한 식물성 관절 건강기능식품, 199가지의 자체 품질 검수 기준 등 엄격한 기준, 까다로운 생산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세노비스 관계자는 "'Simply Trust' 캠페인은 소비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드러냄으로써 리딩 브랜드로서의 자신감과 믿음을 전달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수많은 건강기능식품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제품 선택을 유도하고 제대로 된 건강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믿음 브랜딩은 비단 식품업계의 일만이 아니다. 정유업계 역시 믿음 브랜딩을 가동 중이다. SK에너지는 '진심을 채우다'라는 캠페인(오른쪽)을 시작했다. 흔히 소비자들이 품질을 신경 쓰지 않거나 확인하기에 어려운 분야지만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게 정유 품질을 얘기하겠다는 의도다. 이광수와 이유비를 모델로 내세워 코믹한 춤, 음악 등 유머 코드를 삽입해 엔크린의 품질과 글로벌 경쟁력을 풀어냈다. 또 TV 광고 캠페인의 일환으로 다양한 시민 참여형 온·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호서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전상민 교수는 "품질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의 강력한 메시지는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구매 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고관여 제품일 경우 더욱 효과적으로 브랜드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다"고 말했다. /정은실기자 ames@metroseoul.co.kr

매콤하고 달콤한 '불낙볶음면' 팔도는 불 맛이 살아있는 '불낙볶음면'의 출시에 맞춰 10일 오전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제품의 홍보행사를 진행했다. 이 제품은 매콤 달콤한 낙지 페이스트에 불 맛을 제대로 살린 볶음면으로 고추와 채소를 직화식으로 볶은 원료를 넣어 마치 불판에 낙지와 함께 볶은 것처럼 불 맛이 살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편의점 기준 소비자가격 1500원이며, 용기면은 105g으로 1400원이다. /팔도 제공

"수술사고 의료분쟁 70% 의료진 책임"

수술 사고로 발생한 의료 분쟁의 70% 가량이 의료진 책임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정을 결정한 수술 사고 의료 분쟁 328건 중 67.7%(222건)가 의료진 책임이 인정돼 배상 등급 결정을 했다.

222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입원 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로 입원한 경우는 70.3%(156건)였으며 추가 진료비는 모두 환자가 부담했다. 배상 금액은 5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41.0%(91건)로 가장 많았다.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24.3%(54건), 1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23.9%(53건), 1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 3.6%(8건) 등의 순이었다. 1억원 이상 배상 결정에 난 사건은 4.9%(11건)였다.

의료 분쟁 328건이 발생한 요인으로 수술 잘못이 38.7%(127건)로 가장 많았지만 환자의 기왕력이나 체질 요인 등 환자 소인에 의한 경우도 18.9%(62건)였다.

피해 내용별로 추가 수술을 받은 경우가 34.9%(113건)로 가장 많았고, 악화 22.0%(72건), 장애 18.3%(60건) 등이었다. 사망한 경우도 12.5%(41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 유형을 살펴보면 미용 성형 수술이 21.6%(71건)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종양 수술 17.1%(56건), 관절 수술 12.2%(40건), 척추 수술 11.6%(38건), 장 수술 6.7%(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영일기자

시험 잘 보면 연봉 1000만원 '껑충'

이국명 기자의 알짜기업 탐방
⑯ 이스트소프트

연 2회 개발자 승격시험 눈길
연애까지도 멘토링 '패스카드'
야근 다음날 2시간 늦게 출근

알집·알약·알씨·알송·알마인드에 개방형 검색포털 줌·온라인게임 '카발온라인'

PC 사용자라면 매우 친숙한 이름들이다. 평범한 PC 바탕화면에 하나쯤 깔려있는 달걀 모양의 아이콘은 '국민 아이콘'으로 불릴 정도다. 하지만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들을 서비스하는 '이스트소프트'란 이름이 알짜기업으로 더욱 유명하다. 창립 20주년, 직원 수 520여 명의 중견기업이지만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제도를 자랑하면서도 벤처기업 특유의 끈끈한 기업 문화가 남아있는 덕분이다.

이스트소프트의 가장 눈에 띄는 기업 문화는 '패스카드'라는 독특한 멘토링 제도다. 사내 문제는 물론 결혼·연애·집 마련 등 사적인 고민까지 원하는 직장 상사에게 조언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마은우 인사팀 팀장은 "최근 기업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기존에 활발하던 사내 멘토링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 패스카드란 제도를 올 하반기에 도입했다"며 "사내 메신저를 통해 누구에게나 패스카드를 전달할 수 있는 덕분에 김장중 대표에게 조언을 구하는 직원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스트소프트 로고로 만들어진 사내 카페에서 직원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능력 있는 개발자를 우대하는 '개발자 승격 시험' 제도도 주목거리다. 대졸 신입 초임은 3000만원 수준이지만 1년에 두 번 치러지는 시험을 연달아 통과할 경우 무려 1000만원 이상 연봉이 올라간다.

게다가 석·박사는 물론 학사 학위에 도전하는 직원들에게 등록금의 최대 70%를 지원해주는 학위취득보조제도도 직원들의 자기 계발 의욕을 북돋우고 있다.

이 밖에 야근 등으로 오후 9시 이후 퇴근한 경우 다음날 출근 시간을 최대 2시간까지 늦출 수 있는 지연출근제도, 5년 근속마다 14일 유급 휴가를 주는 안식휴가제도, 여성 직원들을 위한 산후근속 장려금 등도 다른 기업 직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내년 수시 정시로 100여 명 채용

재무구조도 점점 탄탄해지고 있다. 20년간 개발한 30개 이상의 소프트웨어에서 고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 데다 게임 사업은 물론 포털 사업도 수익성이 개선되며 올 3분기 매출 83억1000만원, 누적 매출 약 27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6%(누적 매출액 약 18.4%)나 증가한 수치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인재 영입도 서두르고 있다. 올해 100여 명의 인재를 신규 채용한 데 이어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인력을 수시 또는 공개를 통해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0월 제주도에 오픈한 '제주캠퍼스'에서 일할 인재도 향후 100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채용 공고나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www.estsoft.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취업사기 경험" 27%

고용조건 허위·과장 가장 많아

구직자들을 울리는 취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취업포털 커리어가 구직자 544명을 대상으로 '취업 사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직자의 27.2%가 올 하반기 구직 활동 중 허위·과장 공고, 금품 요구 등 취업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취업 사기의 종류로는 '고용 조건의 허위 및 과장'이 37.3%로 가장 많았다. '다단계 유입'(19.5%), '학원 수강 및 교육 등의 취업 조건 제시'(15%), '영업 강요'(10.9%), '교재비 등 금품 요구'(8.6%) 등이 뒤를 이었다.

취업 사기에 대한 대응으로는 '무시했다'(66.9%)가 '해당 회사에 항의했다'(15.5%), '고용노동부 신고센터에 신고했다'(11.5%)보다 월등히 많았다.

커리어 관계자는 "취업 사기 예방과 대응에 대한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며 "허위·과장 구인 공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관련 기관과 주변에 알려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국명기자

시간 선택제 일자리 박람회 '북적'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시간 선택제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길게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삼성, 롯데, 신세계 등 6개 그룹 11개 계열사를 비롯해 지역 시간 선택제 일자리 기업 74개사가 참여해 600여 명을 채용한다. /연합뉴스

시간제일자리 뜨고 고졸채용 지고

올 취업 시장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주목을 받은 반면 고졸 채용은 시들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가 직장인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올해 취업 시장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이슈'에 대해 조사한 결과, 45.5%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등장'을 꼽았다. 특히 여성(50.2%)과 50대 이상(58.8%)은 과반수 이상이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등장을 가장 큰 이슈로 뽑았다.

'고졸 채용 일시적인 훈풍이었나'가 32.6%로 2위에 올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기업들이 고졸 인력의 채용 계획을 발표했으나 규모가 예년에 비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졸 신입 연봉 3000만원 시대'는 31.4%의 지목을 받았다. 잡코리아가 올해 4년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을 집계한 결과, 대기업은 평균 371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외국계기업(3132만원), 공기업(3072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국명기자

이런 인재를 원한다

기왕이면 정규직 채용…'착한' 인재 선호

"최근 빵 만들기를 취미로 가진 한 구직자가 회사 로고를 설탕공예로 만들어 와 사내에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마은우(사진) 인사팀 팀장은 이스트소프트에는 이처럼 열정과 창의력이 넘치는 직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구직자가 만든 이스트소프트 로고 설탕공예

-정규직 위주의 채용을 진행한다고 들었다.

▶당장의 비용 절감보다는 회사의 영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경영진의 판단이다. 따라서 인턴은 꼭 필요한 부문으로 한정하고 있다. 올해 뽑은 100여 명의 직원 중 인턴은 3명에 불과하다.

-그래서인지 분위기가 따뜻해 보인다.

▶당장 회의 등에서 "일부러 골라 뽑은 것도 아닌데 선한 사람들만 들어오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사내 선후배와 형·동생처럼 지내는 직원들도 많다. 대표부터 솔선수범해서 직원들의 사적인 고민까지 해결해주는 멘토링 덕분으로 보인다.

-합격 비법을 공개한다면.

▶선언이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문외한인 지원자가 의외로 많다. 예시잡은 물론 자신의 직무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특히 준비된 답변보다는 스스로를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원자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다. /이국명기자

장윤희 기자의 투잡 체험기
스피치트레이닝 ④

긍정적 내용 높이고 부정적 표현 낮추고

말을 하다 보면 특정 내용을 강조하고 싶을 때가 있다. 강조법을 적절히 사용하면 청중의 집중도를 높여 전달력을 강화할 수 있다.

목소리를 통한 강조법으로는 음의 높낮이가 있다.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발음할 때 목소리를 높이거나 낮춰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모으는 것이다. 목소리는 긍정적이고 밝은 내용에서 높이고, 당부하거나 부정적인 내용일 때 낮추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너를 사랑해'란 문장에서 '사랑해'란 말을 할 때 목소리 톤을 격앙시키면 내용 전달력이 높아진다. 반대로 '민족의 비극입니다'란 내용에서는 '비극입니다' 부분의 목소리를 내려 깔면 진지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발음을 길게 늘여서 강조하는 법이 있다. '이 음식 정말 맛있다'에서 '정말'을 '정~말~' 처럼 길게 발음하면 느낌을 호소력 있게 전달할 수 있다. 강조하고 싶은 어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부사나 형용사에서 많이 쓰인다. 내게 가장 소중한 선물'에서 '소~중한',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에서 '너~무나' 등을 강조하는 식이다.

말을 하다 멈추는 기법(pause)도 있다. 강조하고 싶은 내용 앞에서 말을 잠깐 멈추는 것이다. 인기 드라마 '상속자들'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고백한 대사 '나, 너 좋아하냐?'를 예로 들면 '나'와 '너' 사이에 말을 잠깐 멈추면 전달력을 높일 수 있다.

언변가는 타고나는 것이 아닌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일상생활에서 말하기를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입이 풀리는 느낌이 올 것이다. 다음 회에서는 주의해야 할 발음에 대해 알아본다. /uno@

"음악으로 세상과 통해요"

하트하트재단, 발달장애아 사회성 향상 위한 음악활동 지원 '하트포르테' 눈길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가족과 연인 등에게 줄 선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올해는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형 가전제품 등을 선물해보는 것이 어떨까. 최근에는 싱글족의 증가로 실용성과 더불어 세련된 디자인까지 갖춘 소형 가전들이 연말 선물 아이템으로 인기다.

예쁘고 실용적인 소형가전 세련된 싱글족의 잇아이템

연말연시 선물로 제격

탄산수제조기 브랜드 소나스트림의 '소스'는 별도의 전기나 배터리 없이 5초 만에 탄산수를 만들 수 있는 실용성은 물론 심플한 라인의 디자인 덕분에 여성을 비롯한 젊은층의 선호도가 높다. 입맛에 따라 탄산의 강도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기호에 맞게 레몬·라임·자몽 등 합성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은 10여 종의 천연 시럽을 활용해 더욱 다양한 탄산음료를 즐길 수 있다.

소다스트림은 연말을 맞아 인기 제품으로 꼽히는 소스(플라스틱) 화이트, 블랙 2종류의 제품을 정상가의 29%로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다.

일렉트로룩스가 최근 선보인 '에르고라피도'는 스틱청소기와 핸디청소기 두 가지 타입으로 사용 가능한 멀티 코드리스 청소기다. 초강력 모터로 기능을 업그레이드했으며 북유럽 감성의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메탈릭 컬러가 돋보여 선물용으로 인기다.

코웨이의 초소형 냉온정수기 '한뼘2'는 두께 18㎝인 한 뼘 사이즈 안에 기술을 집약시킨 편의성으로 주부들에게 선물하기에 좋다. 이 제품은 정수기 최초로 스마트 자동 정량 추출 기능을 탑재했다. 또 컵을 올려두면 적외선 센서가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미리 설정한 양만큼의 물을 별도의 조작 없이 추출할 수 있다.

다양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네스프레소의 '픽시'도 선물용 아이템으로 인기다. 레드·인디고·티타늄의 세 가지 색상으로 취향에 따른 선택폭을 넓혔으며 커피의 양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 또 물의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며 머신 사용 후 9분이 지나면 전원이 꺼져 경제적이다.

소다스트림을 국내에 수입·유통하고 있는 엘텍산업의 황의경 대표는 "최근에는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과감한 색감과 심플한 디자인의 소형 가전제품이 선물용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연말을 맞아 선물용으로 각광받고 있는 다양한 스타일과 기능을 탑재한 소형 가전제품들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병철기자 jbc@

지적장애 2급인 진오(가명·19)는 발달장애 아동의 음악 활동 지원 프로그램인 '하트포르테'를 통해 올해부터 우쿨렐레를 배웠다. 지적장애로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발음도 부정확해 친구들과 대화가 어렵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진오였지만 하트포르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됐고 이제는 자신감 있게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됐다. 진오는 요즘 우쿨렐레를 연주할 수 있는 하트포르테 수업 시간이 가장 기다려진다고 한다.

하트하트재단은 올해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3개년 제안형 기획사업으로 하트포르테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재단은 현재 전국 장애인복지관 17개소, 350여 명의 발달장애 아동들이 난타, 합창, 사물놀이, 오케스트라, 우쿨렐레, 카혼 등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트포르테는 발달장애 아동들이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적 재능을 개발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노하우를 공유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재단은 지난 2006년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 청소년 하트하트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운영해오며 음악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발달장애인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앞으로도 전국의 소외된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문화복지 혜택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하트포르테 사업을 확대 진행할 방침이다.

◆15일 장애인식 개선 콘서트에 발달장애 아동 초청

특히 재단은 하트포르테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가를 꿈꾸는 발달장애 아동들이 자신들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예술의전당과 함께 오는 15일 오후 2시에 개최하는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하트 투 하트 콘서트(Heart to Heart Concert)'에 발달장애 아동들을 초청할 예정이다.

하트하트재단은 지난 1988년부터 가난하고 소외된 국내외 아동 및 그 가족들을 지원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됐으며 현재 교육, 문화 지원사업, 문화복지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후원 문의 02)430-2000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향수·양초 선물 이번엔 됐거든!

원적외선 안대, 승마완구 등 뻔하지 않은 선물줘야 감동

올 연말에는 향수, 양초 같은 뻔한 아이템 대신 받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맞춤' 선물을 골라보자. 주는 사람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은 두 배가 된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는 직장인들은 유독 눈이 피로하다. 눈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압이 높아지고 순환이 정체돼 다크서클이 심해진다. 눈의 불편함을 자주 호소하는 동료에겐 눈 건강 아이템이 제격이다. WK마케팅의 '아이젯벡'은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발생하는 희토류(일딘 5)를 안대 안에 넣고 작용하는 제품으로 원적외선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 매끄러운 눈가를 촉촉하게 가꿔준다.

요즘처럼 모임이 잦은 연말에는 화려한 주얼리가 각광을 받는다. 반짝반짝 빛나는 스와로브스키의 크리스털 목걸이와 귀걸이는 평소 멋내기에 서툰 여자친구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다. 수수한 옷차림에 착용하면 금세 파티 패션이 완성된다.

자녀 선물도 마찬가지다.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아이의 성향에 따라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아이템을 고르는 게 현명하다.

신체 활동이 부족하거나 움직이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겐 놀면서 운동할 수 있는 완구가 적당하다. 쁘띠엘린의 승마 완구 '포니사이클'은 전신 운동을 돕고, 허리를 곧게 펴는 습관을 길러준다.

/서희원기자 ju@

뉴스 & 뉴스

MCM, 가로수길에 문화아지트+매장 '마지트' 오픈

● 독일 정통 명품 브랜드 MCM은 12일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문화 감성을 담은 새로운 개념의 문화 스토어 마지트(M AZIT)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마지트는 MCM의 M과 아지트(Azit)의 합성어로 패션과 예술을 사랑하는 누구나 문화의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장소라는 의미다. 총 3개 층으로 구성됐으며 1층은 편집 매장으로 꾸몄다. 2층 문화 아지트에는 국내외 유명·신진 예술가들을 발굴, 작품을 전시할 계획이다.

제리쉬, 침대·식탁·커튼 등 14일부터 최대 70% 할인

● 노블 리빙 디자인 기업 제리쉬는 14일부터 9일간 '2013 제리쉬 패밀리세일'을 진행한다.

전국 제리쉬 직영 매장 6곳에서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침대·식탁 등의 가구를 비롯해 침구·커튼 등의 패브릭 제품 등 800여 가지 세품을 만나볼 수 있다.

/서희원기자

'윈터볼' 찾으면 100% 경품

아디다스 16일까지 이벤트 영등포 타임스퀘어서 열려

글로벌 리딩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16일까지 영등포 타임스퀘어 1층 아트리움에서 윈터 부스행사 및 100% 당첨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추운 겨울 실외 온도를 그대로 재현한 아이스 룸에 준비된 아디다스 벌키 재킷을 입고 들어가 주어진 시간 안에 특별 제작된 공(윈터 볼)을 찾거나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면 100% 당첨 경품 스크래치 쿠폰을 증정한다.

스크래치 쿠폰을 긁으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비니 및 양말 또는 넥 워머 등으로 구성된 아디 서프라이징 캔(20명), 아디다스 장갑 또는 오리지널스 비니(100명), 아디다스 1만원 할인 쿠폰(전체 참가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간 내 윈터 재킷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선물 교환권을 나눠주고, 24일 이 교환권을 들고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디다스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 선착순 100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윈터 아이템을 넣은 아디-서프라이징 캔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증정한다. 더불어 손흥민 구자철과 함께하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브랜드 통합 윈터 캠페인 론칭

한편 아디다스는 '추울수록 우리는 뜨겁다(our warmest ever)'라는 주제 아래 '추운 날씨에 더욱 가볍고 따뜻하게 겨울 스포츠를 즐기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브랜드 통합 윈터 캠페인을 론칭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맹활약 중인 대한민국 축구의 희망 손흥민 구자철 선수가 양궁 국가대표 기보배 선수와 함께 캠페인 화보에 참여해 그들의 강한 에너지와 열정을 스타일리시하게 표현했다.

아디다스 윈터 캠페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디다스 웹사이트(www.adidas.com), 아디다스 공식 온라인 스토어(shop.adidas.co.kr) 및 블로그(www.alladidas.com), 트위터(@alladida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지환기자

로봇 살까? 인형 살까? 홈플러스는 25일까지 전국 138개 점포에서 '크리스마스 완구 대전'을 열고 사상 최대 물량의 완구를 판매선보인다. /홈플러스 제공

소맥 마셨더니 손발가락 '욱신욱신'

연말 통풍환자 2배… 붉은 육류 피하고 물 많이 마셔야

송년회가 끊이지 않는 연말연시, 이런저런 모임에 참석하다 보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술이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연간 술 소비량의 3분의 1이 연말연시에 집중된다고 할 정도로 연말에는 술 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다. 술 중에서도 특히 맥주에는 요산(尿酸)을 만들어내는 퓨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연말에 소맥 혹은 맥주를 지속적으로 즐기다 보면 통풍 환자의 발생 빈도가 늘어난다.

보통 연말연시를 제외하고는 기존 통풍 환자들이 10명 정도였다면 연말을 지난 1, 2월에 통풍으로 고소이마병원을 찾는 환자의 수는 2배에 달할 정도다.

요산은 음식을 통해 섭취되는 퓨린을 인체에서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를 말하는데 통풍은 혈액 내 요산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바늘같이 뾰족한 요산염 결정이 관절의 연골 및 주위 조직에 쌓이면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 질환의 증상은 밤에 관절 부위가 쑤시고 뻣뻣해지면서 부어오르는데 심한 경우 옷깃만 스쳐도 통증이 심해진다. 대부분 엄지발가락과 발목에서 처음 발생하고 무릎, 팔꿈치, 손목, 손가락 등 관절이 있는 곳은 어디든 나타날 수 있다.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 남성들의 경우 회식 및 음주를 통해 요산 수치를 높이는 퓨린이 다량으로 함유된 삼겹살, 치킨 등의 육류와 생선류 등을 맥주와 함께 마시게 되면서 통풍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붉은 육류, 등푸른 생선, 알류의 섭취는 피하는 게 좋고 평소 하루 1, 2ℓ의 물을 마시면 요산의 배출을 도와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정리 김기자 press@metroseoul.co.kr

전구에서 1600만가지 빛이!

필립스 스마트조명 '휴' 시연

"의미 있는 혁신을 통해 소비자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김태영(사진) 필립스전자 대표이사 사장은 10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립스 이노베이션 프로젝트'의 결과를 보고했다.

필립스는 지난달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인 '이노베이션 앤드 유(innovation and you·혁신과 당신)'를 발표하고 사람 중심의 혁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필립스는 그 일환으로 도봉구 방학천 산책로의 낙후된 조명을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실천해왔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활용해 조명의 전원·색상·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조명 휴(hue) 등 직접 시연했다. 이 제품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600만 가지의 색상 표현은 물론 설정된 시간에 자동으로 점·소등이 가능하다. 김 대표는 "지난해 해외에서 먼저 선보인 휴는 사용자 중심의 조명 시스템을 제공하는 혁신을 이뤘다"며 "앞으로 국내 마케팅과 후속 제품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필립스는 내년에 조명 사업뿐 아니라 헬스케어와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등 3개 사업 부문에서 혁신적인 시도를 지속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대표는 "이노베이션은 필립스의 DNA에 해당하는 핵심 가치"라며 "변화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인류의 삶에 필요한 진정한 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기자 pjw@

제주항공 "국제선 예약률 94%"

지난해보다 2%p 높아

연말연시 국내선 항공권은 여유 있지만 국제선은 예약률이 높아 좌석을 구하기 힘들 전망이다.

제주항공은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5개 국제선 평균 예약률이 94%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선은 약 64%의 예약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국제선은 2%포인트, 국내선은 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특히 외교적인 상황과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가는 노선의 예약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우선 인천~후쿠오카 노선은 지난 10월부터 좌석이 늘었지만 지난해 93%에서 올해 95%로 예약률이 오히려 상승했으며 나고야도 지난해 71%에서 올해 88%로 무려 18%포인트 높아졌다. 또 인천, 김포~오사카는 87%, 올해 신규 취항한 도쿄는 89%의 예약률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인천~괌 노선과 홍콩 노선은 100%에 가까운 예약률을 기록 중이며 방콕은 97%, 필리핀 세부와 마닐라는 95~96%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연말연시 예약은 최소 2개월 전에 마무리된다. 연말연시를 피한다면 훨씬 합리적인 비용으로 겨울 여행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내년 1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인천~괌 노선의 항공권을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 등을 모두 포함해 최저 43만6300원부터 판매하고 있으며 연말연시 기간 남은 좌석은 69만5600원에 예매할 수 있다.

/황재용기자

이대목동병원 김민영 전공의 대한주산의학회 우수 연제상

이대목동병원 김민영(사진) 산부인과 전공의가 지난달 서울아산병원에서 개최된 '제26차 대한주산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상을 수상했다. 김민영 전공의는 김영주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임신 기간 중 산모의 식이 제한이 자궁내부 조절물질에 미치는 영향(Maternal food restriction during pregnancy perturb hypothalamic regulator)'을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황재용기자

신인 걸그룹 틴트. 제이미, 미니, 상미, 미림, 메이(왼쪽부터)

메인보컬 '무한경쟁'… 제2 이효리 될래

'첫눈에 반했어'로 상큼한 매력발산

틴트

신인 걸그룹 틴트(메이, 상미, 미림, 제이미, 미니)의 초반 돌풍이 예사롭지 않다.

2년 여의 준비 끝에 10월 말 데뷔한 틴트가 첫 번째 디지털 싱글 '첫눈에 반했어'로 풋풋함과 신선함을 앞세워 걸그룹 홍수 속에서 주목받고 있다. 1996년생인 막내 미니를 시작으로 맏언니 메이와 상미는 1994년생으로 평균 연령 18.2세다. 데뷔 두 달도 안 된 틴트를 보고 있으면 1990년대 후반 걸그룹 1세대 핑클과 S.E.S.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메인 보컬 없다!

넘치는 끼와 주체할 수 없는 매력으로 똘똘 뭉친 틴트에게 없는 게 하나 있다. 바로 메인 보컬이다. 틴트의 '첫눈에 반했어'에는 어쿠스틱 버전이 편곡돼 싱글에 포함됐다. 이 버전에서는 원곡과 달리 멤버들이 부르는 파트가 바뀌어 듣는 재미를 더했다. 틴트가 특별한 메인 보컬 없이 멤버 전원이 메인과 서브를 오갈 수 있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리더 메이는 "메인 보컬이 없기 때문에 멤버들은 일단 노래 전체를 연습해야 한다. 그런 뒤 무한 경쟁을 통해 자기 파트가 결정되는 만큼 신곡이 발표될 때마다 멤버들의 실력도 그만큼 발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미림은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멤버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각자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인지 틴트는 데뷔 한 달 만에 '제23회 서울가요대상' 후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평균 18세 5인조 걸그룹 · 멤버 전원 올라운드 플레이어
핑클·S.E.S. 닮은 듯… "막내 미니 가장 어른스러워요"

#꿈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K팝스타 2' 걸그룹 유유로 이름을 알린 미림의 꿈은 코디네이터에 가깝다. 미림은 "자신을 꾸미는 데 재능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심리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중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메이는 학교에서 반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수재였다. 메이는 "어릴 적부터 기수가 되고 싶었지만 전문 통역관을 꿈꾸기도 했다"고 밝혔다. 첫눈에 남다른 외모를 자랑하는 상미는 어릴 적 관현단 활동에 이어 안양예고에서 연기를 전공했다. 상미는 "어릴 적 여군을 꿈꿨다. 캣우먼처럼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상대방에게 강하게 보이고 싶었다"며 엉뚱한 매력을 과시했다. 밴드부 보컬 출신으로 뛰어난 가창력이 특징인 제이미는 "친오빠가 몸이 불편해 간호사가 되고 싶었지만 이젠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며 오빠를 지켜주고 싶다"고 말했다. 막내 미니는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를 낳고 좋은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꿈은 달랐지만 이제 가수의 길을 선택한 틴트의 멘토는 섹시퀸 이효리였다. 멤버들은 "자연스러우면서 개성이 강한 이효리 선배처럼 되는 게 우리의 목표다"며 "아직 신인이라 한 가지 콘셉트에 집중하고 있지만 다양한 시도를 하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무대 위 모습은 거짓? 숨은 매력 분석!

웃지만 스쳐도 인연 이라는 말이 있듯 3개월째 숙소 생활을 하면서 느낀 멤버들의 성격은 무대 위 모습과 전혀 달랐다. 막내 미니에 대해 상미는 "막내답게 귀여움은 독차지하고 있지만 숙소에서는 가장 어른스럽다. 숙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혼내기도 하고 가장 부지런하다"고 말했다. 미림은 메이를 "자신을 시크하고 여성스럽게 대해주길 바라지만 막내처럼 애교도 엄청 부린다. 연습할 때는 리더답게 카리스마 있게 분위기를 이끈다"고 털어놨다. 메이는 상미를 "가장 여성스러운 멤버"라고 소개했다. 그는 "다이어리 꾸미고 밤에 야광별 스티커를 붙이는 등 소녀 감성이 강하다"고 말했다.

제이미의 매력에 대해 미니는 "숨겨진 매력이 많다"면서 "평소 말수가 적어 시크하고 도도한 것 같지만 혼자서 개인기를 연습하는 등 겉보기와 다르게 상반된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제이미는 미림에 대해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고 말했다. 제이미는 "다른 멤버들을 생각 안 하고 첫 번째로 샤워실에 들어가 반신욕을 해 질타를 받기도 한다. 얼굴이 잘 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에 철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심은 달랐지만 음악이라는 매개체로 똘똘 뭉친 틴트의 활약이 기대된다.

/장병호기자 yoa@metroseoul.co.kr

사진/에이엔터테인먼트 제공 디자인/박은지

star bag

이제 득녀 - 세 아이 아빠 됐다

배우 **차태현**이 득녀해 세 아이의 아빠가 됐다.

소속사는 10일 "차태현이 10일 새벽 셋째 딸을 안았다"고 밝혔다. 이어 "차태현이 출산 시기에 맞춰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었다"며 "부인 곁을 지킨 차태현이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 무척이나 기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태현은 슬하에 첫째 아들 차수찬군과 둘째 차태은양을 두고 있다.

'젠틀맨' K-팝 뮤비 1위에

월드스타 **싸이**의 '젠틀맨'이 올해 전 세계 유튜브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본 K-팝 뮤직비디오에 올랐다.

10일 유튜브가 발표한 2013년 유튜브 인기 K팝 뮤직비디오 순위에서 4월 발표된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현재 약 6억 건에 달하는 조회수로 1위를 기록했다. 앞서 '젠틀맨'은 유튜브에 공개된 직후 최다 일일 조회 수, 최단기간 1억 뷰 돌파 등 기록을 세우며 화제를 모았다. 소녀시대의 '아이갓어보이'와 엑소의 '으르렁'이 2~3위에 올랐다.

시트콤 '감자별' 카메오 출연

배우 **서지석**이 tvN 시트콤 '감자별'에 카메오로 출연한다.

tvN 측은 10일 "서지석이 12일 방송될 '감자별' 38회에 깜짝 등장한다"며 "김병욱 감독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카메오 출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지석은 김병욱 감독이 2011년 연출한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에 출연하며 인연을 맺었다. 서지석은 "역대 최강 카메오로 불릴 만한 코믹 연기를 선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이웃돕기 자선바자회 참가

걸그룹 **티아라**가 불우이웃돕기 자선바자회에 참여한다.

10일 소속사에 따르면 티아라는 24일 논현동 카페엔느에서 진행될 자선바자회에 애장품, 무대의상, 액세서리 등 300점 이상을 기증하며 현장에서 직접 판매에도 나선다. 같은 소속사 동료인 황정음·다비치·지석진·손호준도 10~20점 정도 물품을 기증하며 동참했다.

이민호·박신혜 "바쁘다 바빠"

'상속자들' 끝내도 팬미팅 등 해외 스케줄 '빡빡'

시청률 20%를 넘기며 화제 속에 방영 중인 SBS 수목극 '상속자들'이 종영까지 단 2회 만을 남긴 가운데, 주연배우인 이민호와 박신혜가 한류스타답게 드라마를 끝내자마자 글로벌한 행보를 펼친다.

이민호의 소속사 스타우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0일 "이민호가 종영 다음날인 13일이나 14일에 광고 촬영과 프로모션차 중국과 싱가포르에 갈 예정"이라면서 "내년 1월 18일 글로벌 투어 '마이 에브리싱' 앙코르 서울 공연을 끝낸 후에는 아시아 및 남미 등을 도는 투어를 다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신혜 역시 종영 직후 여러 해외 일정을 소화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예정이다.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 관계자에 따르면 박신혜는 이번주 중국의 한 위성 TV에서 주최하는 TV 드라마 시상식에 참석할 예정이며, 21일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팬미팅 '박신혜의 특별한 선물'을 연다.

SBS '상속자들'에 출연 중인 박신혜와 이민호. /뉴시스

소속사 관계자는 "중국 시상식은 수상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초대에 응해 가게 된 것"이라면서 "일본 팬미팅은 올해 아시아투어를 펼친 박신혜가 큰 성원을 보내준 일본 팬들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호와 박신혜는 각각 '꽃보다 남자'와 '미남이시네요' 등을 통해 한류스타로 떠올랐다. 이후 여러 히트작을 배출한 이들은 이번에 함께 출연한 '상속자들'이 국내외 여러 나라에서 뜨거운 인기를 모으며 다시금 높은 인기를 입증했다.

두 사람의 출연에 힘입어 '상속자들'은 올해 드라마 수출 최고가로 일본에 팔렸으며, 아시아는 물론 유럽·미국까지 12개국과도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쿠닷컴에서는 드라마 누적 조회 수가 3억4000만 뷰를 돌파하기도 했다.

/박현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이연희 "퀸의 포즈란 이런 것"

'미스코리아' 이미지컷 공개

배우 이연희가 화려한 미스코리아로 변신해 물오른 미모를 뽐냈다.

18일 첫 방송될 MBC 새 수목극 '미스코리아'(사진)의 메인 이미지 컷이 10일 공개됐다. 이 사진에는 퀸이 되어야 하는 여자 오지영(이연희)을 위해 퀸 메이커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담겼다.

다양한 색상의 페인트와 공구들이 널려있는 작업장에서 이선균은 진지한 표정으로 붉은색 붓을 들고 이연희의 드레스를 칠하고 있다. 이성민은 용접공이 돼 이연희의 구두를 열정적으로 매만지고 있으며, 연구원 가운을 입은 송선미는 이연희의 전체적인 모습을 체크하며 도움을 주고 있다.

제작진은 "포스터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이연희는 무거운 티아라를 손으로 받치며 힘들어했지만 사진을 촬영하는 순간에는 가장 완벽한 모습을 표현해내며 프로다운 모습을 보였다. 이선균 역시 익살스러운 표정들로 다양한 사진들을 완성해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 드라마는 1997년을 배경으로 위기에 처한 화장품 회사 직원들이 자신의 고교 시절 전교생의 퀸카를 미스코리아로 만든다는 로맨틱코미디물이다.

/유순호기자 [illegible]

오창석 '오로라 공주' 하차? "죽음 맞지만 재등장 여지"

배우 오창석(사진)의 MBC 일일극 '오로라 공주' 하차설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오창석이 연기 중인 남자 주인공 황마마가 다음주 사고를 당해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미 변희봉·박영규·손창민·오대규·이상숙·이아현·이현경·임예진·송원근·신주아·서우림 등 10명 이상의 주요 연기자가 갑자기 미국으로 떠나거나 유체 이탈 후 돌연사하는 등 개연성 없이 하차한 바 있다. 이 같은 하차가 이어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이 드라마를 집필하는 임성한 작가 퇴출 서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오창석이 극중 죽음을 맞는 건 사실이나 환상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재등장할 여지는 남아있다"면서 "아직 마지막 회 대본이 공개되지 않아 확답하기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한편 이 드라마는 20일 종영한다.

/박현민기자

'응칠' 멤버 '응사' 출연 응답했다

인기리에 방영 중인 tvN '응답하라 1994'(이하 응사)에 전편 '응답하라 1997'(이하 응칠·사진) 멤버들이 카메오로 출연한다.

tvN 신원호 PD는 10일 "정은지·서인국·신소율·이시언·호야 등 총 5명의 '응칠' 출연진이 '응사' 16·17화에 카메오로 출연한다"면서 "시청자들에게 깜짝 재미를 주기 위해 최근 비밀리에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997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에피소드에서 부산 친구들로 등장하며, 성시원(정은지)·윤윤제(서인국)·모유정(신소율)·방성재(이시언)·강준희(호야) 등 '응칠'의 캐릭터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다.

/유순호기자

"제 댄스 보고 캐스팅했대요"

김규리, 임권택 '화장' 합류

임권택 감독의 102번째 작품인 영화 '화장'이 여배우 캐스팅을 확정 짓고 이달 말 촬영에 들어간다.

제작사는 10일 "안성기가 앞서 일찌감치 출연을 결정한 데 이어 김규리(사진)와 김호정이 최근 합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훈 작가의 제28회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작인 동명의 소설이 원작인 이 영화는 죽어가는 아내와 연정을 품고 있는 젊은 여자 사이에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한 중년 남자 오상무(안성기)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육체의 생성과 소멸, 삶과 죽음이라는 깊이 있는 소재를 임 감독만의 무르익은 성찰의 시선으로 그려낼 예정이라 기대를 모은다.

김규리는 극중 오상무의 마음을 사로잡는 젊고 아름다운 여직원 추은주 역을 맡았다.

이미 2004년 '하류인생'을 통해 김규리와 인연을 맺은 바 있는 임 감독이 올해 10월 열린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무대에 오른 김규리의 축하 댄스 공연을 보고 "아름다운 육체의 선과 열정적인 모습이 추은주 역에 어울린다"고 판단해 캐스팅이 성사됐다.

2001년 영화 '나비'로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바 있는 김호정은 오상무의 죽어가는 아내 역을 맡았다. 그 동안 연극 무대에 주력했던 그는 뇌종양 환자를 연기하기 위해 몸무게 감량과 삭발까지 감행하며 연기 투혼을 펼칠 예정이다. /조성준기자 when027@

"첫 사극… 망극하옵니다"

설경구 조선판 투캅스 '두포졸' 캐스팅… 강우석 감독과 호흡

배우 설경구(사진)가 강우석 감독과 손잡고 데뷔 이후 처음으로 사극에 도전한다.

영화제작사 시네마서비스는 10일 "강우석 감독의 차기작이자 그의 20번째 연출작으로 기획되고 있는 영화 '두포졸'에 설경구가 캐스팅됐다"면서 "설경구에게는 데뷔 이후 첫 사극"이라고 밝혔다.

'두포졸'은 한국 영화 흥행 기록을 다시 쓴 것은 물론 트렌드를 변모시킨 강 감독의 흥행작 중 하나인 '투캅스'의 조선판이자 완결판이다. '투캅스'의 강력한 투톱 코미디의 구성을 가져가되 새롭게 조선시대 한성의 포도청을 배경으로 복지부동 무사안일주의 의 베테랑 포졸과 '전방지축' 원칙정의주의의 신참 포졸 간 코믹 격돌을 그려낼 예정이다.

설경구와 강 감독의 4년 만의 의기투합 또한 큰 기대를 모은다. 앞서 두 사람은 '형사 강철중' 이라는 공전의 캐릭터를 만들어낸 영화 '공공의 적' 시리즈와 1000만 관객 이상을 동원한 '실미도'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설경구는 "1.년 전 '공공의 적' 시나리오를 보고 꼭 강철중을 시켜달라고 무작정 졸랐던 초기 시절을 기억하는 만큼 강우석 감독과의 조우는 늘 뜻깊다. 첫 사극은 더욱 기대된다"고 캐스팅에 대한 남다른 의미를 전했다.

강 감독은 "'투캅스'의 완결판으로 시작된 기획이지만 시나리오 작업이 진전되면서 새로운 작업으로 변모하고 있기에 이에 '투캅스 제로'라는 부제마저 떼버렸다. '두포졸'로 타이틀을 확정하고 강한 투톱 코미디 캐릭터를 세게 붙이고자 가장 먼저 설경구가 의기투합하기로 했다"고 타이틀 및 캐스팅 확정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김민정기자
ysw@metroseoul.co.kr

김장훈 캐나다 최대 박물관서 단독공연

개관 100년 이래 처음

가수 김장훈(사진)이 캐나다 최대의 박물관이자 랜드마크인 롬에서 단독으로 연말 공연을 개최한다.

롬에서 가수가 단독 공연을 하는 것은 박물관 개관 100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롬 측은 김장훈의 음악성과 연출력, 사회공헌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례적으로 롬 로비와 메인홀 공연을 협조했다.

롬 공계자인 케이티 록말칸은 "김장훈의 음악과 퍼포먼스는 무척이나 에너지틱한 동시에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때로는 즐겁게 움직인다. 기부와 사회공헌에 대해서는 '훌륭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는 '엑설런트 맨' 롤모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공연 허가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공연은 캐나다 토론토 공연의 앙코르 형식으로 진행되며, 수익금의 전액은 현지의 여러 단체에 기부된다. /장병호기자

에스엠루키즈' 3명 추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예비스타 브랜드 '에스엠루키즈'의 루키 3명이 추가로 공개됐다.

SM은 10일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라미(16) 재현(16) 아이린(22) 등 3명을 공개했다. 라미는 지난해 방송된 SBS 주말드라마 '다섯손가락'의 여주인공 홍다미의 아역을 맡았으며, 아이린은 지난 8월 공개된 가수 헨리의 '1-4-3(I Love You)' 뮤직비디오에 연인 역할로 특별 출연한 경력이 있다.

에스엠루키즈는 SM에서 트레이닝을 받으며 데뷔를 앞두고 있는 연습생들을 루키라 이름 지어 공개하는 프리데뷔팀의 성격을 가진 예비 스타 브랜드다.

SM의 예비 스타 브랜드인 '에스엠루키즈'에 합류한 라미·재현·아이린(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이들은 정식 데뷔 전 다양한 조합으로 음원 발매, 공연, 버라이어티 쇼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음원은 씨스타 아티스트는 버스커버스커

올해 엠넷차트 결산 결과

국내 최대 음악 사이트 중 하나인 엠넷닷컴이 올 한 해 가요계 최고의 아티스트와 앨범을 공개했다.

CJ E&M 스마트미디어사업본부는 라이프스타일 뮤직 서비스 '엠넷닷컴'의 2013년 '엠넷차트'를 결산해 올 한 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음원과 아티스트 순위를 10일 발표했다.

이 순위는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34일간의 엠넷차트를 분석해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수치 합산 2013 종합 순위, '아티스트 종합 순위', '엠넷차트 톱 100 최장기간 진입 순위', '앨범 순위', '최다 음원 스트리밍 순위', '최다 음원 다운로드 순위'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순위를 선정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가요계의 진정한 대세는 걸그룹 씨스타(사진 위)였다. 엠넷닷컴 유저들의 음원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수치를 각각 50%씩 합산한 결과 2013년 최고의 음원은 씨스타19의 '있다 없으니까'였다. 씨스타의 효린과 보라로 구성된 유닛 그룹인 씨스타19는 1월 이 곡을 발표한 후 줄곧 정상을 지켜 종합 순위 1위에 올랐다. 또 베지기의 미니 앨범 수록곡 '눈물샤워'는 2위, 리쌍의 '눈물'은 4위에 오르는 등 힙합 뮤지도 강세였다.

올 한 해 최고의 아티스트는 '저 유센 사람이란게', '가을밤' 장렬 걸 등 2집 수록곡이 고른 사랑을 받은 버스커버스커(아래)가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봄 선보인 '벚꽃엔딩'은 올해도 차트 순위 상위에 올리는 등 지치지 않는 저력을 과시했다.

이에 힘입어 앨범 순위 1위 역시 버스커버스커가 9월 발표한 2집 앨범이 차지했다. 수록곡 9곡은 발매 직후 음원 차트 상위권을 휩쓸며 큰 사랑을 받았다. /장병호기자 ysw@

'슈스케 톱10'의 숨은 끼 보여드릴게요

21일 부산서 콘서트 개최 서울·대구 무대도 마련

엠넷 '슈퍼스타K 5'의 톱 10이 진정한 뮤지션으로 거듭나는 무대가 공개된다.

이들은 21일 부산 벡스코, 25일 대구 엑스코, 28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슈퍼스타K 5 톱 10 콘서트'를 개최하고 방송에서 미처 보여주지 못한 음악과 숨은 매력을 전한다. 각자 준비한 개인 무대는 물론 다양한 협연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우승자 박재정이 박시환과 특별 듀엣 무대를 꾸미고, 송희진은 더욱 폭발적인 고음을 선보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기리·남주미·이수민으로 구성된 위블리는 섹시하게 변모한 모습을 드러낸다. 이외에 임순영·플랜비·네이브로·김민지 장원기 등은 한층 성숙해진 음악을 들고 찾아온다. 또 깜짝 게스트도 등장한다.

엠넷 '슈퍼스타K 5'의 톱10이 생방송 경연 무대에 올랐을 당시 모습 /CJ E&M 제공

박재정은 "너무 커다란 꿈을 이뤄서 아직까지 멍하다. 이번 콘서트는 새로운 시작이다"며 "크리스마스가 생일인데 일주일간 팬들과 콘서트 현장에서 보내게 돼 무척 기쁘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공연을 주최하는 CJ E&M은 "톱 10 참가자들로부터 자신의 개성이 맞는 희망곡과 원하는 콜라보 무대 기획에 대해 적극적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톱 10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무대인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와 기획으로 관객을 깜짝 놀라게 하는 공연이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순호기자 sun@metro.co.kr

<브로드웨이 흥행작>

'저지보이스' 오리지널팀 상륙

포시즌스 성공과정 담은 주크박스 뮤지컬 – 내년 1월 17일부터 첫 내한 공연

브로드웨이 흥행 뮤지컬 '저지보이스' 오리지널 팀(사진)이 처음으로 한국 관객과 만난다.

이 뮤지컬은 내년 1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 두 달여간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공연된다. 한국에서는 첫 공연이며 아시아 지역은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다.

1960년대를 풍미한 그룹 포시즌스 네 멤버의 성공 과정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은 주크박스 뮤지컬이다. 가난한 사곤 소년들이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뭉쳐 무대에 서고 순식간에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는 어마어마한 성공과 명예를 거둔 뒤 다가오는 갈등과 위기의 과정을 그렸다.

CF를 통해 한국인들에게도 익히 알려진 '캔트 테이크 마이 아이즈 오프 유'를 비롯해 '오, 왓 어 나이트', '쉐리' 등 30여 곡에 이르는 포시즌스의 명곡을 만날 수 있다.

이 작품은 8년 전 초연 당시 1년간 티켓을 구하지 못해 번호표를 받고 기다려야 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지금까지도 브로드웨이의 '라이온 킹', 웨스트엔드에서 '위키드', '라이언킹'과 더불어 수년간 흥행 순위 톱 3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주크박스 뮤지컬로는 이례적으로 2006년 토니어워즈에서 최고의 뮤지컬상을 비롯해 남우주연상과 남우조연상, 조명상 등 4개 부문을 수상했다. 이 작품의 OST는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뮤지컬 앨범에 선정되기도 했다. 웨스트엔드 개막 이후 2008년 영국 올리비에 어워즈 최고의 뮤지컬상을 받았으며, 세 차례나 라스베이거스 최고의 쇼에 선정되는 등 전 세계 42개 주요 상을 휩쓸어 있다. /박진형기자 tab@metro

'파르지팔'로 시작해 '박쥐'로 끝낸다

국립오페라단 갈라 무대

국립오페라단의 '2013 오페라 갈라'가 29~30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펼쳐진다.

국립오페라단이 올해 무대에 올린 작품들의 하이라이트와 내년 선보일 기대작의 주요 장면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다.

공연은 10월 국내 초연한 '파르지팔'의 서곡으로 시작해 베르디 200주년 기념작 '돈 카를로',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전석 매진 기록을 세운 '카르멘'(사진), 베르디가 남긴 유일한 희극 '팔스타프' 등을 차례로 무대에 올린다.

또 셰익스피어 탄생 450주년 기념을 맞아 내년 무대에 올릴 '로미오와 줄리엣'과 '오텔로', 내년부터 새롭게 선보일 '모차르트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 '돈 조반니'를 미리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오페레타 '박쥐'가 화려한 대미를 장식한다. 문의 02)586-5284 /박진형기자

뮤지컬 'JSA'도 흥행돌풍

창작 뮤지컬 '공동경비구역 JSA'가 원작 영화 팬들의 기대감에 힘입어 매진 기록을 세웠다.

제작사는 10일 "7일 대학로뮤지컬센터 공간파괴로에서 첫선을 보인 '공동경비구역 JSA'가 공연 시작 3일 만에 평균 객석 점유율 95%를 기록했다"면서 "티켓 오픈 1시간 만에 전체 공연 티켓의 80% 이상을 판매했으며, 개막 후 관객들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판매량이 더욱 증가했다"고 밝혔다.

흥행을 기록한 동명의 영화 개봉 후 13년 만에 뮤지컬로 탄생된 이 작품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발생한 남북 병사의 총격 사건을 둘러싼 진실을 파헤치는 내용이다.

뮤지컬은 원작 소설의 배경과 주제, 영화의 휴머니즘적 정서를 적절하게 섞고 웅장하고 클래식한 음악을 더해 더욱 드라마틱한 무대로 완성했다. 양준모·임현수 등이 출연한다. 문의 070)8612-8380 /박진형기자

40대 유부남 성찰담은 '마흔'

'마흔 살, 90학번 세대들의 삶을 소소하게 풀어내는 한 편의 연극이 무대에 오른다.

연극 '마흔'이 12~29일 이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된다. 이 내와 딸이 집을 비우자 40대 가장이란 굴레에서 벗어나 일탈의 기분을 느끼게 된 천영이 대학 시절 짝사랑했던 유정의 소식을 접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유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린다.

2005년 창단 후 연극 '춘천거기', '임대아파트', '시건발생 일구팔공'을 무대에 올린 극단 청국장이 제작하고, 김한길이 연출을 맡는다.

제작사는 "소위 IMF세대와 X세대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사회를 청년으로 보냈던 90년대 학번의 세대가 중년의 나이가 됐다"면서 "마흔쯤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유부남의 그럴듯한 솔직한 자기 고백과 성찰의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02)765-8817 /박진형기자

날씨

12/11 水 일출시각 07:36 일몰시각 17:1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ohs.co.kr

서울 -2/1 · 청주 -3/3 · 대전 -1/4 · 전주 -1/4 · 광주 0/5 · 제주 6/9 · 강릉 -/5 · 울릉도 4/6 · 대구 -2/5 · 포항 1/7 · 울산 0/8 · 부산 0/8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에는 콘택트렌즈 착용 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속될 경우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지수
감기 가능 지수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1
		5	1	6	7	2		
				3				
	4			5			8	
5	2		8		3		1	4
		8	4		2	5		
1		4				7		6
	6						5	
		3	5		6	1		

스도쿠 정답

		9	5		4	3		
8								2
		4				7		
				6				
4	3						9	8
	8			5			1	
1			9		7			5
	4		8		6		7	
		8		3		9		

문제제공: 벗누스
슈퍼스도쿠 마스터
(재플러 미디어 리미티드 제공)

캣우먼
칼럼니스트

사생활 참견하는 남편 친구부인 성가셔 상처 주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선 그어야

Q Hey 캣우먼!
최근 남편의 대학 동창이 같은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제가 참 불편해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연봉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우연히 동네에서 만나면 어디 가서 뭘 하냐고 꼬치꼬치 캐묻고 자주 뭘 같이하자고, 어딜 가자고 합니다. 전화라도 걸려오면 참 부담스러워서 받기도 싫어요. 그냥 남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다 보니까 함부로 딱 끊어서 말하기도 뭣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불편 여자

A Hey 불편 여자!
남편에게 말해도 남편 입장에서는 해결하기가 애매하고 자칫 괜히 일을 더 키우기가 쉽지요. 둔한 그녀가 상황 파악을 할 때까지 짜증나겠지만 끈질기게 거절하고 그녀가 거절을 받아들이게끔 거부하는 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일단 연봉 같은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것은 물으면 대답하지 마시고요.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묻냐"고 되레 웃으면서 넘기세요. 오늘 어디 가서 뭘 하냐고 꼬치꼬치 캐묻는다면 저의 경우 "애인 만나러 간다"고 늘 웃으면서 농담하지만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여자라면 관공서를 대충 갖다붙여 대답하면 됩니다.

어른이 되면 누군가와 관계가 중간에 끊기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내가 관계에서 버림받을 수도 있고 내가 그 관계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겪으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지만 가급적 상처를 다들 안 받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 자체가 그 관계의 생로병사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관계가 끊긴 것은 내 탓일까, 아니면 상대가 나빴을까 라고 선명하게 판단하거나 정의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안 맞으면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게 서로를 위한 겁니다. /캣우먼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이직할까 고민 중인데 어쩌죠 현직장에서 부족한 것 채워야

선~ 여자 71년 3월 19일 음력 오후 4시, 남자 74년 윤달 4월 5일 음력

Q 올봄에 방문 상담받고 만족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직할 고민 중인데 현재 직장을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분야로 바꿔야 할지 궁금합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와 궁합이 어떤지도 알고 싶습니다.

A 모든 것이 항상 바라는 대로 이뤄지기 힘들고 원치지 않는 불행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컵에 물이 절반만 담겨있을 때 사람에 따라 '물이 절반밖에 없다'고 불평하기도 하고 "물이 절반이나 남았다"고 만족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가 사람을 자족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만스럽게도 만듭니다. 사고의 차이는 우리를 희망으로 이끌기도 하고 절망 속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도세주옥(陶洗珠玉) 귀중한 구슬을 가려내 씻음)으로 예술이나 문학 방면에 조예가 있어 사색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당장 이직을 결심하기보다는 직장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가세요. 남자친구와의 궁합은 지면 관계상 다시 신청해주세요.

내년 가을 한국 떠날까 하는데 조국만큼 편안한 곳 절대 없어

멜버이란7 여자 87년 1월 21일 양력 오후 10시

Q 지난번 상담 때 대인관계의 내실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올여름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심신이 약해진 상태랍니다. 내년 가을쯤 한국을 떠나 직장을 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 사주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고집이 담다른데 귀문·고랑살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기피하기도 합니다. 잘게 말하면 순수함과 고귀함의 상징이라 현재 속진(俗塵)에서는 귀하의 원대한 이상이 잘 통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인(女人)에서 관살혼잡(官殺混雜) 관살은 남자를 말해 는 오행이 생각에 너무 깊거나 많아서 보통 수준의 선을 이탈함을 암시하므로 파기(破棄)할 수도 없으니 각별히 유념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조국은 학습과 경험으로 형성된 나라는 존재의 모든 것을 저장하고 있는 안식처입니다. 적인과 내가 태어난 생김이 화를 하면 외국보다는 국내가 편안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에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2월 11일 (음 11월 9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 **48년생** 기다리는 일에 과중하지 마라. **60년생** 작은 것에 나가고 큰 것 들어온다. **72년생** 버릇하다는 소리 들더라도 겸손할 것. **84년생** 힘들지만 보람 느낀다.

소 — **49년생** 멀리서 반가운 소식 있다. **61년생** 결심했으면 여론에 흔들리지 마라. **73년생** 오랫동안 공들인 일 결실 맺는다. **85년생** 변수 많을수록 차분히 움직여라.

호랑이 — **50년생** 고집은 적당할 때 꺾어라. **62년생** 예상하지 못한 고민 생긴다. **74년생** 부모님 생일이다 기념할 걸 생겨라. **86년생** 편견 및 버리면 즐거운 복원이 된다.

토끼 — **51년생** 생각지도 못한 곳돈이 생긴다. **63년생** 주변이 여수선해 싱숭생숭하다. **75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87년생** 계획은 상황에 맞게 다시 짜라.

용 — **52년생** 못마땅해도 순리 따르는 게 좋다. **64년생** 관청에 드나들 일 생긴다. **76년생** 중요한 비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신경 써라. **88년생** 주위에 사람 몰려든다.

뱀 — **53년생**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이득이다. **65년생** 사소한 약속이라도 소중히 생각할 것. **77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89년생** 지나간 실수에 얽매이지 마라.

말 — **42년생** 떠난 버스는 빨리 잊어라. **54년생** 축재나 종매 성사된다. **66년생** 궂은일이라고 내팀로 미루지 마라. **78년생** 어려워도 최선을 다하면 도우미 나타난다.

양 — **43년생** 지나친 걱정은 일만 꼬이게 한다. **55년생** 돈 때문에 애로가 있을 듯. **67년생** 바쁘게 움직이다 지갑은 홀쭉하다. **79년생** 급할수록 생각을 넓게 가져라.

원숭이 — **44년생** 어려울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56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다. **68년생** 멀리 외출할 땐 안전사고에 주의하라. **80년생** 친구의 일로 바쁘지만 즐겁다.

닭 — **45년생** 한적한 경사가 생겨 즐겁다. **57년생** 우물 안 개구리 되지 마라. **69년생** 의지가 강하면 불운도 피해간다. **81년생** 부모님께 기쁨 안겨드리니 유쾌하다.

개 — **46년생** 귀인이 찾아오니 대비하라. **58년생** 신경이 쓰이고해 이 실수 없다. **70년생** 구설수 있으니 술자리에서 실언 조심. **82년생** 보편적으로 생각해야 무리 없다.

돼지 — **47년생** 어른사람 말 듣는 게 좋다. **59년생**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 **71년생** 고전하지만 목적지가 보여 힘이 솟는다. **83년생** 이성과의 다툼에 주의.

황금장갑에 5억 대박…'박병호의 날'

96% 득표율 1루수 골든글러브·연봉도 127% 껑충 손승락은 19년만에 마무리투수로 수상 기록 세워

2년 연속 프로야구 최우수선수(MVP)를 수상한 넥센 히어로즈의 거포 박병호(27)가 골든글러브도 석권했다.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13 한국야구르트 세븐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박병호가 총 유효표 323표 중 311표를 받아 압도적인 득표율(96.3%)로 1루수 부문 황금 장갑을 꼈다. 또 한국스포츠사진기자협회가 선정하는 골든 포토상도 수상했다.

박병호는 올해 정규리그에서 홈런(37개), 타점(117개), 득점(91점), 장타율(0.602) 등 4개 부문에서 공격 부문 타이틀을 휩쓰는 등 2년 연속 홈런 타점왕을 독식했다. 하지만 골든글러브 역대 최고 득표율 기록은 깨지 못했다. 이 부문 역대 최고 기록은 2002년 지명타자 부문에서 마해영(전 삼성 라이온즈)이 기록한 99.26%(272표 중 270표)다.

◆2013 골든글러브 수상자

▲투수 손승락(넥센) ▲지명타자 이병규(LG) ▲포수 강민호(롯데) ▲1루수 박병호(넥센) ▲2루수 정근우(한화) ▲3루수 최정(SK) ▲유격수 강정호(넥센) ▲외야수 박용택(LG) 최형우(삼성) 손아섭(롯데) ▲페어플레이상 박용택(LG) ▲사랑의 골든글러브 조성환(롯데) ▲골든포토상 박병호(넥센)

최대 격전지인 투수 부문에서는 넥센의 마무리 투수 손승락이 황금 장갑을 꼈다. 손승락은 97표를 받아 배영수(삼성·80표), 크리스 세든(SK 와이번스·79표)을 간발의 차로 따돌리고 생애 첫 영광을 안았다. 마무리 투수가 골든글러브를 꺼기는 1994년 정명원(당시 태평양 돌핀스) 이후 19년 만이다. 또 롯데 자이언츠 손아섭은 외야수 부문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안게됐다.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른쪽 앞줄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박용택(외야수), 이병규(지명타자), 정근우(2루수), 손아섭(외야수), 최정(3루수), 강정호(유격수), 강민호(포수), 손승락(투수), 최형우(외야수), 박병호(1루수) /연합뉴스

이 밖에도 2루수 부문에 정근우(한화 이글스), 3루수 부문에 최정(SK), 유격수 부문에 강정호(넥센) 등이 선정됐으며 강민호(롯데)와 이병규(LG 트윈스)가 각각 포수, 지명타자 부문의 주인공이 됐다. 생애 7번째 황금 장갑을 품에 안은 이병규는 만 39세 1개월 15일의 나이로 역대 최고령 골든글러브 수상의 영예도 누렸다.

한편 올해를 자신의 해로 만든 박병호는 소속 구단과 올 시즌 연봉에서 127.3%가 인상된 5억원에 내년도 연봉 계약을 맺었다.

/정성운기자 jsw@metroseoul.co.kr

자케로니 만난 카펠로 "한국 조심해야 한대요"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 한국과 같은 조에 속한 러시아의 파비오 카펠로(67·이탈리아·사진) 감독은 일본 대표팀 알베르토 자케로니(60·이탈리아) 감독의 말을 빌려 한국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카펠로 감독은 10일 러시아 일간지 스포르트 익스프레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은 매우 어려운 상대다. 친구인 자케로니로부터 신중하게 상대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면서 "지금부터 한국에 대한 전력 분석을 꼼꼼하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자케로니의 일본에 유독 약하다. 2010년부터 4번을 상대해 1무2패로 아직 승리가 없다. 조광래 전 감독부터 현 홍명보 감독 체제까지 경험하며 이겼던 터라 자케로니 감독이 카펠로 감독에게 더 많은 정보를 준다면 한국으로선 월드컵 본선이 힘들어질 수 있다.

한편 러시아는 내년 월드컵에서 6월 18일 오전 7시 쿠이아바에서 한국과 1차전을 치른 뒤 23일 오전 1시 벨기에와 2차전, 27일 오전 5시에 알제리와 조별리그 최종전을 펼친다. /정성운기자

'추신수 영입전쟁' 애리조나도 가세

"텍사스는 6년 1억3800만 달러 제시할 것" 전망도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추신수(31) 영입 경쟁에 불을 붙였다.

자유계약선수(FA)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추신수를 영입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구단은 텍사스 레인저스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다.

미국 CBS 스포츠는 10일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두 구단이 추신수 쟁탈전에 본격 가세했다"고 보도하며 계약 임박을 예고했다.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이 전력 보강을 위해 선수 트레이드와 FA 계약 등을 논의하는 윈터 미팅이 시작된 첫날 추신수 쟁탈전 소식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조만간 그의 행선지가 결정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텍사스 지역 언론인 댈러스 모닝 뉴스는 텍사스와 추신수의 협상 소식을 더욱 구체적으로 전하면서 그의 예상 몸값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매체는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텍사스와 추신수의 에이전트인 스콧 보라스가 올겨울 최소 두 차례 만났다"며 "여러 구단 중에서도 텍사스 구단이 추신수 영입 경쟁에서 아주 경쟁력을 갖춘 팀"이라고 소개했다.

나아가 텍사스가 추신수에게 6년간 1억3500만~1억3800만 달러를 제시할 것으로 예측했다.

두 구단 외에도 보스턴 레드삭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등도 추신수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병호기자

리디아 고 세계랭킹 4위

프로 데뷔 47일 만에 첫 우승컵을 들어 올린 골프 신동 리디아 고(16·사진)가 세계여자골프랭킹 4위로 뛰어올랐다.

리디아 고는 10일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7.78점을 받아 지난주보다 2계단 높은 순위에 자리했다. 박인비(11.47점), 수잔 페테르센(10.83점), 스테이시 루이스(9.61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순위다. /정성운기자

NC 외국인 타자 첫 영입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올 시즌 문제점으로 드러난 빈약한 타선 강화에 나선다.

NC는 10일 "첫 번째 외국인 타자로 미국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에릭 테임즈(27) 선수를 영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인 테임즈는 만 27세(1986년생)로 183cm, 95kg의 체격 조건을 갖췄으며 외야 수비 및 1루를 소화할 수 있는 우투좌타 야수다. /정성운기자

'루키' 김민구·김종규 프로농구 올스타전 출전

슈퍼루키 김민구(KCC 이지스)와 김종규(LG 세이커스)가 프로농구 최고의 축제인 올스타전에 출전한다. 한국농구연맹(KBL)은 오는 22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질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올스타전에 출전할 24명의 올스타 명단을 확정했다.

모비스 피버스 양동근이 팬투표에서 2년 만에 최다 득표(4만6535표)를 획득하며 2004~2005 시즌 데뷔 이후 8시즌 연속 올스타에 선발됐다. 팬 투표 2, 3위를 기록한 루키 김민구(4만3726표)와 김종규(4만3028표)는 프로농구에 데뷔한 지 두 달 만에 올스타 무대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시즌 최다 득표자 SK 김선형(4만422표)은 데뷔 이후 3시즌 연속 올스타 베스트 5 선발로 아쉬움을 달랬다. /장병호기자

프로농구 전적 10일

삼성	20	17	15	24	76
전자랜드	25	17	14	22	78

프로배구 전적 10일

삼성화재	3	1	러시앤캐시

설레는 도전을 시작합니다!

엄마, 나 러시앤캐시 합격했어
우리 회사에 대해 안 좋은 얘기가 많지?
나도 잘 알아~
그래서 처음엔 망설였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구
은행이나 카드회사랑 하는 일은 비슷해
대신, 이자가 비싼 만큼
훨씬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야
아직 신입사원이긴 하지만, 다녀보니까 좀 좋아지네?!
그래서 한 번 열심히 해보려구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능력 발휘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한
더 좋은 회사로 만들게요!

우리의 도전을 지켜봐 주세요!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서비스